

일반논문

최기숙 | '사건화'된 일상과 풍속개량론의 사회적 상상

: 젠더적 시각으로 본 『재국신문』의 '풍속개량' 논설과 여성 관련 잡보 기사의 비교 분석

송명희 | 김명순 시에 나타난 분노 감정

김주리 | 일제강점기 소설 속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 모성을 중심으로

김복순 |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이선옥 |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 『사상계』를 중심으로

김은석 | 1960~70년대 여성 시의 정전화 과정과 '센티멘탈리즘'의 문제

: 『한국여류문학전집』을 중심으로

박지영 | '위기'의 여자들 :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조현준 | 『자기만의 방』과 『여인무사』를 통해 본 『물관』의 여성 주체 번역 실천

: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의 가능성

‘사건화’된 일상과 풍속개량론의 사회적 상상*

: 젠더적 시각으로 본 『제국신문』의 ‘풍속개량’ 논설과 여성 관련 잡보 기사의 비교 분석

최기숙**

차례

1. 『제국신문』의 ‘풍속개량론’과 ‘별보/기서/잡보’의 상호 관련성
2. ‘풍속개량론’의 전개: 주제·범주(영역)·시각
 - 2.1. ‘풍속개량론’의 범주와 시각: 사회 관찰·문화 비평·대안 제시
 - 2.2. ‘풍속개량’과 ‘태도’로서의 근대: 언론/독자의 사회적 개입
 - 2.3. ‘풍속개량론’의 반향: 여성 문제의 초점화와 소통적 공론장
3. 젠더적 시각으로 본 ‘풍속개량론’(논설)과 ‘사건화’된 여성 기사(잡보)
 - 3.1. 여성 관련 풍속개량론의 전개와 양상
 - 3.2. 사건화된 여성 개가: 자녀문제/개가반대/중매사기/불행/자결
 - 3.3. 사건화된 혼례: 조혼/사치/매매혼
 - 3.4. 사건화된 가정불화: 작첩/통간/폭력/기출
 - 3.5. 사건화된 섹슈얼리티: 강간/기생/매음(위생·범죄)/인신매매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국신문』(1907.5.17~1909.2.28) 논설란에 게재된 ‘풍속개량론’ 및 관련 논설, 기사, 별보를 잡보란에 수록된 ‘풍속’ 관련 ‘사건 기사’와 비교함으로써, 근대계몽을 주장한 매체와 지식인, 언론의 입장과 매체(기자/목격자)에 의해 관찰된 일상, 또는 그 안에 포섭된 당사자의 행동과 목소리의 ‘차이’를 ‘다층적 근대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했다.

『제국신문』은 풍속개량론을 연재하기 전에 사회와 일상에 대한 관찰을

*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4929)

** 연세대학교 부교수

수행하여, 체계적인 분석의 기초를 마련했고 비판과 대안을 모두 제안했다. 연재 전후에는 문제적 풍속이 나타난 인민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언을 서술함으로써, ‘태도로서의 근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청국의 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아시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풍속개량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풍속은 의복, 개가, 압제혼, 육아 등인데, 여성 독자의 기서는 여기서 간과된 여성의 교육권과 교양적 처신을 논의함으로써, 매체의 관점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다.

풍속개량론이 계몽의 언설구조를 취했다면, 이와 연결된 여성문제는 잡보란을 통해 ‘사건화’되어 서술되었다. 논설에서는 개가 허용을 강조했지만, 잡보란에서는 부모의 만류로 불가능했던 사연, 개가를 둘러싼 각종 사기와 폭행 사건, 과부 보쌈을 둘러싼 범죄가 서술되었으며, 사망한 남편을 따라죽는 여성을 여전히 열녀로 치하하는 기사가 공존했다.

조혼과 압제혼은 풍속개량론에서 비판된 혼례문화였는데, 잡보란을 통해 특히 각종 매매혼의 피해 사례가 빈번했음이 드러났고, 작첩, 통간, 폭력, 기출 등 혼인생활의 파국과 가정불화가 속출되었음이 보도되었다. 기사의 서술 시각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었지만, 여성의 억울함을 듣고 공감하는 관점이 공존하는 중층성을 띠었다.

잡보란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 화간(통간), 유명인에 연루된 성적 스캔들, 기생, 매음(위생, 범죄, 스캔들), 인신매매 등이 ‘사건화’되어 실렸다. 이는 논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근대 초기 여성적 삶의 실상이다.

이 논문은 근대초기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근대성을 논할 때, 지식인의 관점이 반영된 논설란만을 배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논증하기 위해 ‘논설’와 ‘잡보’란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층적 근대성’이라는 연구 관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핵심어 : 제국신문, 풍속개량, 논설, 잡보, 사건화된 근대, 계몽, 여성, 젠더, 강간, 매매혼, 인신매매, 가정불화, 조혼, 다층적 근대성

1. 『제국신문』의 ‘풍속개량론’과 ‘별보/기서/잡보’의 상호 관련성

이 연구에서는 『제국신문』 논설란에 게재된 ‘풍속개량론’ 및 관련 논설, 기서, 별보를 잡보란에 수록된 ‘풍속’ 관련 ‘사건 기사’와 비교함으로써, 근대계몽을 주장한 매체와 지식인, 언론의 입장과 매체(기자/목격자)에 의해 관찰된 일상, 또는 그 안에 포섭된 당사자의 행동과 목소리의 ‘차이’를 ‘다층적 근대성’¹⁾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풍속개량론이 연재된 1907.10.10.~11.15 전후의 『제국신문』을 검토하되, 특히 그간 학계에 공개되지 않았던 1907.5.17.~1909.2.28.의 『제국신문』을 대상으로 삼아,²⁾ ‘풍속개량론’과 관련 논설, 별보, 기서와 이에 관여된 ‘사건화’³⁾ 잡보 기사를 서술 방식과 수사학의 차원에서 비

-
- 1) ‘다층적 근대성’이란 서구화, 문명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지식인 중심, 문자 중심의 ‘근대’만을 허용하는 ‘근대기획’의 단층성에 대응하는 확장적 개념으로서, 한국의 근대성을 지식인 중심의 ‘계몽’의 정의에 정합된 것으로 한정할 때 발생하는 ‘누락된 차원’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젠더 연구자 이라가라이(Luce Irigaray)가 ‘성’에 대해 논한 명명법을 차용해, ‘하나이지 않은 근대’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전통과 근대의 ‘부정 교합’, 표류라는, 서사의 근대성」, 『고소설연구』 37집, 한국고소설학회, 2014④, 51~53쪽을 참조.
 - 2) 최근에 해당 시기의 『제국신문』 논설이 공개되었으나(근대초기인쇄매체연구회 편역, 『제국신문 미공개 논설자료집』, 현실문화, 2014), 잡보를 비롯한 기타 지면과 기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운복이 『제국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1907년이고 ‘풍속개량론’의 게재 시기가 그간 학계에 공개되지 않았던 『제국신문』의 간행 시기와 겹치므로, 주로 이를 대상으로 삼아 논설, 별보, 기서, 잡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되, 사안에 따라 1907년 이전의 『제국신문』도 부분적으로 참고하기로 한다.
 - 3) ‘사건화’라는 표현은 언론과 인쇄매체가 개인의 사생활과 내면을 공론화하는 주요한 방식이자, 사적 요인이 언론을 매개로 공적 요인으로 변이하는 지점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언론을 통해 일상이 분할적으로 인식되고 모종의 사건으로 재구성되어 공중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사건화’된 일상과 ‘활자화’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⑤, 235쪽의 각주 6)을 참조.

교/분석한다. ‘풍속개량론’이 여성의 일상과 문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젠더적 관점을 연구의 주요 방법이자 시각으로 활용할 것이다.

『제국신문』에서 풍속개량론이 논설의 표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10월 10일부터로, 이후 11월 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게재된다. 그러나 첫 회가 게재되기 하루 전인 10월 10일에 풍속개량론 연재를 위한 서론 격으로 「정치기량보담 풍속기량이 급함」이 게재된 바 있으므로, 사실상 총 연재 편수는 13편이다.⁴⁾ 풍속개량론의 필자는 1907년부터 이 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한 정운복으로 논설 집필에 사용한 필명은 ‘탄해생’이다. 그런데 『제국신문』에는 풍속개량론이 본격적으로 연재되기 전부터 조선에서 개량되어야 할 ‘풍속’을 요목별로 지목한 논설 15편이 게재된 바 있다. 풍속개량론 연재가 완료된 후에도 별보와 기사, 논설란을 통해 풍속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제국신문』의 풍속개량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재 당시뿐만 아니라 게재 전후의 논설의 맥락과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풍속개량론 연재의 전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와 별보가 게재되었는데, 신문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개인 사례와 경험, 해외의 유사 논지 등이다. 신문의 근대계몽을 지지하는 독자의 기고문을 공유하고, 해외 지식인의 근대 인식이 신문사와 일치함을 강조한 것은 언론의 입장을 공론화한 문화 정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제국신문』에는 논설란의 풍속개량론에서 화제로 삼은 일상의 풍속과 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잡보란에 사건 기사로 게재되고 있었다. 이들은 논설이 포착한 ‘문제적 풍속’을 선회하거나, 여기서 거

4)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이념의 근대와 분열/착종되는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담론」: 『제국신문』 논설·기사(별보)·서사의 여성 담론과 재현, 『여성문학연구』 31, 2014©, 92~97쪽을 참조. 근대 매체에서의 풍속개량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대한매일신보』를 대상으로 한 이형대의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고전과 해석』 1호, 고전학문학회, 2006)이 선도적이다. 여기서 주요한 논점은 성, 결혼생활, 가정관리, 사회풍속 등으로 일상성이 주요하게 분석되었다.

문되지 않은 다기한 문제를 기술했으며, 풍속개량의 대안으로 제시된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 현상을 다루었다. 잡보 기사들은 일정한 시각과 서술 패턴을 공유함으로써, 매체를 통한 사회적 상상력⁵⁾을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의도한 결과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풍속개량으로 대표되는 근대 계몽의 논지와 일상을 살아가는 인민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풍속개량론을 둘러싼 논설란(별보, 기사 포함)의 전개와 잡보란에 서술된 ‘사건’의 간극을 계몽과 현장, 논설과 일상으로 대비시켜 논의하고, 잡보란이 보여주는 일정한 서술 시각과 패턴화된 사건을 근대 언론, 또는 근대적 인쇄매체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논설 중심으로 논의된 근대계몽의 양상 및 근대를 보는 시각을 일상, 인민, 현장, 상상적 시각과 대비하는, 확장적이고 유비적인 논의를 재성찰해 보고자 한다.

2. ‘풍속개량론’의 전개: 주제·범주(영역)·시각

선행연구를 통해 1907.5.17.~1909.2.28. 사이에 게재된 ‘풍속개량’과 관련된 논설의 목록과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⁶⁾ 본 연구를 통해 논설과 잡보의 상관성을 고려하며 전체 자료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탄해생의 ‘풍속개량론’ 연재를 전후로, 이와 관련된 논설, 별보, 기사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했다.

5) ‘사회적 상상력’이란 밀즈(C.Wright Mills)의 ‘사회학적 상상력’(『사회학적 상상력, 강희경·이해찬 옮김, 돌베개, 2004)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인간과 사회, 개인의 삶과 역사,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를 파악하는 구성적 힘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밀즈에 따르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의 전환 능력, 그 과정에서 전체 사회와 구성 요소에 대한 적절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Mills, 2004, 259쪽).

6) 최기숙(2014©), 93~94쪽.

첫째, ‘풍속개량’과 관련된 논설 및 이와 유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재 생산한 별보와 기사.

둘째, ‘풍속개량’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개량’을 위한 비판과 대안, 격려 제시의 논설·별보·기사.

2.1. ‘풍속개량론’의 범주와 시각: 사회 관찰·문화 비평·대안 제시

『제국신문』에 수록된 논설과 별보, 기사 중에서 ‘풍속개량론’ 연재의 마지막 회까지, 풍속 개량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글은 총 28편이다.⁷⁾ 이 중에서 이미 소개된 12편 이외에 16편은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선별된 자료들로, 이에 대한 분석 또한 제기된 바 없다.

[표 1] 제국신문의 “풍속개량”과 관련된 논설·별보·기사
(*표시는 이 논문에서 새로 선별한 글)

번호	날 짜	호 수	수 록 란	제 목	필 자	비 고
1	1907.5.12		寄書	악습을 곳칠 일	然然生	*
2	1907.6.3	2420	논설	각식사회를 급히 기량할 일	-	*
3	1907.6.4	2421	논설	정신 차릴 일	-	*
4	1907.6.5.	2422	논설	정신 차릴 일 (속)	-	*
5	1907.6.6.	2423	논설	정신 차릴 일 (속)	-	*
6	1907.6.19	2434	논설	부인의 의복을 기량할 일	탄희성	*
7	1907.6.20	2435	논설	어린 아히 가라치는 법도	탄희성	*
8	1907.6.21	2436	논설	어린 아히 가라치는 법도 (속)	탄희성	*
9	1907.6.26	2440	논설	희산구원을 성수에 맞기지 못할 일	탄희성	*
10	1907.7.4	2446	논설	단발에 덕훈 의견	탄희성	*
11	1907.8.13	2480	논설	우리나라 각 황족과 스대부의 집 규모를 기혁할 일	-	*

7) ‘풍속개량론’ 연재가 완결된 이후에도 풍속개량과 관련된 글은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이후에 게재된 관련 논설란의 논설, 별보, 기사는 총 29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2.3절에서 논한다.

12	1907.8.20	2486	논설	농업을 개량할 일	탄희성	*
13	1907.9.12	2502	논설	놀기를 도화하는 것은 멸망을 즈취함	-	*
14	1907.9.13	2503	논설	놀기를 도화하는 것은 멸망을 즈취함	-	*
15	1907.9.19	2508	논설	법규와 풍속의 관계	탄희성	*
16	1907.10.8	2514	논설	아편을 엄금할 일	탄희성	*
17	1907.10.9	2515	논설	정치기량보담 풍속기량이 급함	탄희성	
18	1907.10.10	2516호	론설(풍속기량론) (一)	너즈의 기가를 허할 일	탄희성	
19	1907.10.11	2517호	론설(풍속기량론) (二)	닉외하는 폐습을 곳칠 일	탄희성	
20	1907.10.12	2518호	론설(풍속기량론) (三)	압계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탄희성	
21	1907.10.13	2519호	론설(풍속기량론) (四)	압계혼인의 폐풍을 곳칠 일 (전호숙)	탄희성	
22	1907.10.15	2520호	론설(풍속기량론) (五)	틱일하는 폐풍을 버릴 일	탄희성	
23	1907.10.16	2521호	론설(풍속기량론) (六)	위성에 주의할 일	탄희성	
24	1907.10.18	2523호	론설(풍속기량론) (七)	상업계의 폐풍을 고칠 일	탄희성	
25	1907.10.19	2524호	론설(풍속기량론) (八)	온돌을 폐지할 일	탄희성	
26	1907.10.20	2525호	론설(풍속기량론) (九)	음식 먹는 습관을 고칠 일	탄희성	
27	1907.10.27	2530호	론설(풍속기량론) (十)	아히 길으는 방법	퇴극학회 원 김락슈	
28	1907.10.29	2531호	론설(풍속기량론) (十二)	아히 길으는 방법 (련속)	퇴극학회 원 김락슈	
29	1907.11.5	2536호	론설(풍속기량론) (十一) ⁸⁾	아히들의 운동을 힘쓸 일		

8) 원문에 ‘十一’로 표기되었으나, 사실상 ‘十三’회차에 해당한다.

‘탄핵심’이 풍속개량론을 연재한 것은 1907년 10월 10일부터지만, 사실 상 이전에 게재한 논설 중에 총론격이라 할 「각식사회를 급히 기량할 일」([표1] 2번. 이하 괄호 안에 번호로만 표시), 「법규와 풍속의 관계 (15번), 「정치기량보담 풍속기량이 급함 (17번)을 포함하면, 관련 논설은 총 15편이다. 「각식사회를 급히 기량할 일」에서는 ‘관직사회, 량반사회, 학자사회, 술객사회, 잡기사회, 건달사회, 로동사회’ 등 일곱 가지 사회적 영역과 대상을 구체적인 논거를 들고 비판함으로써,⁹⁾ 총 13편으로 이어지는 「풍속개량론 연재의 단초를 보여주었고, 「법규와 풍속의 관계, 「정치기량보다 풍속기량이 급함」에서는 좋은 법규가 있어도 풍속이 바뀌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이어지는 풍속개량론의 논리적 맥락을 마련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풍속개량론을 연재하기 이전에 『제국신문』에는 이미 단편적으로 ‘사회 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촉구하거나, 개량되어야 할 풍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선비와 농업/상업에 대한 비판(3~4번), 부인의복(1903.3.26¹⁰⁾; 1903.3.31¹¹⁾; 번), 양육(7~9번), 해산(9번), 단발(10번), 황족과 사대부의

9) 다만, 이 글에는 풍속개량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인(여성)사회’ 전반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어 있다. ‘여성’을 하나의 사회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은 「부인의 의복을 기량할 일」(1907.6.19.)에서 ‘부인사회의 풍기’, ‘녀자교육회’, ‘진명부인회’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된다. ‘풍속개량론’은 ‘부인사회’ 전반을 ‘개량’의 대상으로 사유하지 않고 ‘사안별’로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10) 「의복 빗줄 일등케 할 일」(1903.3.26. 론설)에서는 유독 우리나라만 ‘흰빛과 옥색을 숭상하는 고로 외국사람이 종롱홍기를 빅의국이라고도 호고 혹 조희사름이라고도 호’므로 일정한 규모로 의복을 염색할 것을 권고했다. 1906년 1월 13일 론설란에는 「복식제도의 관계」가 실리는데, 당시 ‘의복염색하라’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망만 하고 따르지 않는 세태를 비판했다. 이즈음에는 염색에 관한 광고가 1면 첫란에 실릴 정도로 의복 염색이 주요한 화제였다. 의복 사치 풍조를 비판한 논설(「의복□□를 도화홍은 나라멸망을 도모함」)은 1906.1.15.일에도 실린다(이하, 인용문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로 적었다.).

11) 「심식옷 입는 관계」(1903.3.31. 론설)에서는 개명진보를 깨닫지 못한 채 옛 것을 고집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단발을 한지 며칠 안 가서 다시 머리를 기르는 일, 흑의를 입으라는 명을 따르지 않는 세태를 문제적으로 지적했다.

규모 개혁(11번), 농업 개량(12번), 노는 풍속(13~14번), 아편(16번) 등이다. 여기에는 독자의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1번).

풍속개량론에 앞서 게재된 단편적 논설의 특징은 당위적인 계몽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와 일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안한 데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국신문』은 풍속개량론을 연재하기 전에 사회와 일상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분석의 기초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즈식 기르는 풍속은 악습과 폐단이 하도 만하셔 이로 말
할 수 업스나 기중에 큰 것을 들어 말홀진된 세 가지 악풍이 잇스니 첫지는
음식먹이기를 썩업시 흙이오 들지는 꾸짓고 짜리기를 법도업시 흙이오 셋지
는 거죽말하기를 레스로히 녀김이라 (...) 어린 아희가 위티홀 작난을 흥든지
물을 함부로 흥든지 집안에 잇는 괴명을 썩드리면 몽둥이나 담비티로 아모
티나 후려 짜리며 꾸짓는 물이 잡아 먹을 높이니 죽일 높이니 망홀 즈식이니
벌어먹을 년이니 경칠 년이니 주리썩를 안길 높이니 원갓 욱설을 입에서 나
오는 디로 짓거리니 (탄희싱, 「어린 아희 7라치는 법도」, 1907.6.20)

위 인용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관찰한 구체적인 폐단을 행위, 언어, 습관의 차원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는 풍속개량론이 계몽적 이념이나 지식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현장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 근거를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풍속개량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분석과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호응, 관심을 제고하는 논리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 장려의 취지를 서술하고, 서양 학자가 조사한 한국의 산모의 출산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을 구체적인 논거로 제시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9번).

셋째, 풍속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개량의 가능성과 방향,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전달했다. 예컨대, 단발을 권

고하기 위해 장점을 예시한 뒤, 단발하고 서양 모자를 사면 국내 경제가 약해지므로, 모자 제조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그 예다(10번).

넷째, 개량의 방향으로 근대적 생활 덕목이나 지향 가치를 매개했다. 육아 풍속에 대한 개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양의혹사’, ‘서양철학자’, ‘뫼자의 어머니’와 ‘예수교 성경’ 등을 참고한 것(7~8번), 경제와 위생을 고려해 부인의 의복 개량 방안을 논한 것(6번)이 그 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예법이나 신분적 위계에 대한 인식과는 구분되는 근대적 준거가 활용되었다.

특히 풍속개량론의 방향으로 ‘국익(국부)’과 관련된 경제 요소를 보편적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방탕과 잡기에 대한 비판보다 경제와 재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실상에 맞게 농업에 힘써 상공업과 교육을 발달시켜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13~14번).

다섯째, 풍속개량론이 연재될 즈음 3면의 <보기슬혀>란을 통해 풍속개량의 논지를 지지하고, 여기서 제안된 문제적 풍속을 기자의 시선으로 서술하여, 논설 게재에 앞서 풍속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여론을 조성했다.¹²⁾ 이때 문제적 풍속을 ‘보기 싫다’는 정서의 차원에서 서술함으로써, 풍속개량론을 뒷받침하는 전경화 맥락을 마련했다.

① ▲ 리발소에 와서 빙호치고 상토 짜달나는 자들 머리를 비스라면 제집 구석에서나 빗거나 흐필 머리 깎는 리발소에 와서 켜켜 쓰인 몬지를 썬러노 으며 오장이 뒤집히는 너암식을 푸이느니 나는 그자들 보기 슬혀 (생략)
(『보기슬혀』, 1907.10.19)

12) 이와 달리 지지하고 싶은 문화나 일화를 소개할 때는 “萬歲萬歲”란에 신고, 각 사항의 끝에 ‘만세만세’라고 적어 마무리하는 형식을 취했다. 예) ‘대소 학교 학도 칠천여명에게 학문 발달하라고 츠레로 권민호히고 공척 일부식 반사호섯는디 정치 법률 디지 렉스 산술 어학 등 교과을 각각 기록호니 남 보기에는 예스 죠히 에 떡 못은 것 같지만 열심 공부호는 학도들 보기에는 글즈마다 만세만세’ (1907.10.29, 3면)

② ▲ 얼굴에 분을 회박쓰듯 발고 장옷 자락이라 초마 쭈약이를 뒤집어 쓰고 구경터라면 썩노홀 줄 모으고 열불이 나게 돌아 단기는 부인들 너외를 착실히 흐라거던 슈슈하게 분쌀 빗디로 두껏지 흐필 귀부에 대히가 되는 분쵸각을 처덕쳐덕 발나 혼변 볼 것을 두 번식 보게 흐는지 나눈 그 자들 보기 슬혀 (보기슬혀, 1907.10.23)

①은 단발하지 않는 풍속을, ②는 여성의 단장과 의복 문화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사례다. 서술 시각은 논설란 실린 「단발에 디흔 의견」(10번)과 「부인의 의복을 기량할 일」(6번)에 상응된다. 논설이 실리기 이전에 이미 현행 풍속을 ‘문제적’이고 ‘보기 싫은 것’으로 확정하는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논설이 주장한 논지의 타당성과 정서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상의 사례는 풍속개량론 연재가 사회 풍속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지속적 비판 속에서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논설의 주장이 공허한 당위적 계몽론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일상에 대한 현장적 관찰, 과학적 논거, 개량 이후의 파급 효과(특히 경제 분야)를 고려한 구체적 대안 제시와 병치됨으로써 실용성과 실천성을 담보한 것이다.

2.2. ‘풍속개량’과 ‘태도’로서의 근대: 언론/독자의 사회적 개입

『제국신문』에 ‘풍속개량론’이 본격적으로 연재되기 이전에, 해당 논지를 전개하는 맥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글(논설, 별보, 기사)이 여러 편 게재되었다. 이는 현재의 문제적 풍속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인민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와 제언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제국신문』이 풍속개량의 내용과 방향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태도로서의 근대’에 관심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표 2] “풍속개량”을 위한 비판/제언/격려의 논설·기서·별보 (*표시는 이 논문에서 새로 선별한 글)						
번호	날 짜	호 수	수록 란	제 목	필 자	비고
1	1907.6.14	2430	논설	홀 수 업다는 말을 하지 말 일	탄희싱	*
2	1907.6.15	2431	논설	상품진렬소를 보고 혼탄흙	탄희싱	*
3	1907.6.16	2432	논설	부즈런히 벌어서 결혼홀 일	탄희싱	*
4	1907.7.14	2455	기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너 허물을 싱각하야 고칠 일	현직명	*
5	1907.7.16	2456	기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너 허물을 싱각하야 고칠 일 (속)	현직명	*
6	1907.7.17	2457	기서	권리와 의무의 춤 뜻을 알 일	운정(雲庭)	*
7	1907.7.18	2458	기서	권리와 의무의 춤 뜻을 알 일 (속)	운정(雲庭)	*
8	1907.7.23	2462	논설	전국 동포에게 경고함	탄희싱	*
9	1907.7.24	2463	논설	피란가는 자를 위하야 한탄흙	탄희싱	*
10	1907.7.28	2467	논설	락심하지 말 일	탄희싱	*
11	1907.8.15	2482	논설	반디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 일	탄희싱	*
12	1907.8.16	2483	논설	장사하는 사름은 공손흙을 위쥬홀 일	탄희싱	*
13	1907.8.22	2488	논설	락심하지 말고 힘들 쓸 일	-	*
14	1907.10.4	2511	논설	나보담 나흔 자를 슬혀하논 마암	탄희싱	*

풍속개량론 연재가 시작되는 1907년 10월 9일 이전, 논설란에 풍속개량에 관련된 글이 게재된 것은 총 14편이다. 이들은 대체로 6월~8월의 3개월 사이에 작성되었다. 탄해생의 글이 8편으로 가장 많고, 필자 미상의 논설이 1편, 2인의 독자가 투고한 기서가 총 4편이다. 이는 풍속개량론이 논설 필자 외에, 동시대적 독자의 관심과 동의의 구조 속에서 배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풍속개량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려는 매체적 기획이 선행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제국신문』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풍속개량론이 마련된 것인지, 풍속개량론을 확산하기 위한 매체적 기획이 선행했

는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풍속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몽의 논지에 대한 수용력이 강화되었음은 명백하다.

위의 표에 정리된 글들은 특정 풍속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거나 세태를 관찰해 비판했다기보다는 국권회복과 생명 보존에 필요한 대한인의 태도, 또는 개량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 심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우리나라 사름은 마암이 곳지 못히고 참는 힘이 부족하야 그러흔지 무삼 어려운 일을 당흐면 언필칭 홀 수 업다 하니 이 말이 곳 나라를 망흐며 집을 망흐며 몸을 망홀 말이로다 (홀 수 업다는 말을 흐지 말 일, 1907.6.14.)

* 우리 한국이 더 일본사름에게 뇌외권을 다 썩앗기고 웬갓 것을 다 썩갓 쓰니 홀 슈 업소 하니 홀 슈 업단 말이 참 병이요 (중략) 넷 완고흔 풍속을 변혀야 남에 더 신션흔 식 공기를 마셔 구습을 일쥬에 다 바리고 다 각기 힘즈라는 덕로 혹 학교를 촌촌면면이 세워 흥준자체에 교육에 열심흐며 혹 외국에 유학식여 (생략) (현지명, 남을 원망흐지 말고 뇌 허물을 심각흐여 고칠 일(속) 1907.7.16)

탄해생은 ‘쥬덩에서 벼살흐는 사름’, ‘장스흐는 사름’, ‘공부흐는 사름’이 태평할 때는 부귀를 누리고 경영을 하지만 어려울 때는 ‘할 수 없다’고 물러나는 경향이 있다며, 국권회복과 생명 보존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두려움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표 2] 1번, 이하 번호만 표시). ‘할 수 없다’는 무력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논설에서의 주장은 한 달 뒤에 투고한 현지명의 기사(5번)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었다. 이는 논설의 주장과 수사가 당대 독자에게 미친 파급력을 환기하는 사례다.

그 밖에도 풍속개량론이 연재되기 이전에 태서 문명국에서 쓰던 단어인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번역해 소개하면서 단어에 함축된 뜻을 강조한 기사(6~7번)를 게재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논한 ‘태도로서의 근대’가 『제국신문』을 매개로 새롭게 형성되었음이 확인된다.

1907년 7월 23일~24일자 제국신문에서 탄해생은 도로에서 포성이 일어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난하는 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서술하고, 분을 억누르고 직분에 힘쓰라는 취지의 논설을 게재했다. 그 내용의 맥락에는 1907년 6, 7월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어, 7월 20일에 순종이 즉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자리해 있었다. 국가적 위기로 절망에 빠진 인민에게 희망을 부여하려는 의도와 아울러, 국가의 패망과 인민의 일상 풍속의 문제를 연결시킨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 근일 도하에 인심이 물 쏠듯 하여 종로 대도상에 포성이 그치지 안이 하고 검극이 삼렬하여 외국인 중에 죽고 상한 자 이삼십여 명에 달하고 총리대신 리완용 씨의 스테에 불을 질러 물쇼케 하였스니 이 일이 가히 통쾌하다 홀지나 그러나 무릇 사람의 일이라 하는 것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목전의 쾌한 일을 보고져 하면 필경 영원한 큰 스업을 일우지 못하느니라 (탄희칭, 「전국 동포에게 경고함」 1907.7.23)

위 논설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서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세나 사건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예컨대 10번). 논자는 ‘희망할 여지’가 상실된 시대를 통곡하면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제국신문』 논설은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이나 외교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대처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 그 일로 인하여 반디하는 자를 뉘워하든가 원망하는 자의 잇슴을 듯지 못하였거니와 우리나라 사람은 구습을 버셔나지 못하여 정부에서든지 민간사회에서든지 나를 반디하는 자가 잇스면 원슈갓치 뉘워하며 원망하여 괴어히 씨를 업시코져 하는 고로 (...) 또한 일본인과 및 대한동포에게 경고함바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호되 일본인은 한인을 디하여 비일(排日)이라는

말을 하지 몰지며 한인은 동포 중에 일본인과 친한 자야 잇슬지라도 더 사름은 왜놈 다 되엿다는 말을 하지 말지어다 (탄희심, 『반디하는 자를 뉘워하지 말 일 1907.8.15』)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와 방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담았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구습’을 ‘완고’로 규정하고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위치 짓는 수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와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모순이 생성되었다.¹³⁾ 이는 언론이 제안하고 독자가 이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형식으로 확산되었고, 언론의 사회적 과급력 속에서 ‘태도’로서의 근대라는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견인하는 매개가 되었다.

2.3. ‘풍속개량론’의 반향: 여성 문제의 초점화와 소통적 공론장

『제국신문』에 풍속개량론 연재가 종료된 지 1년 후에, 논설과 별보, 독자의 기저 형식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글들이 간헐적으로 게재되었다. 대체로 이들은 기획 연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논의하거나(민속 일반, 연극장 개량, 소설과 풍속), 그와 관련된 파생 문제에 집중했는데(과세, 직성행년[신수풀이책], 노름군, 변소개량, 청결, 의복 개량), 여성과 관련된 사안의 비중이 가장 높다(개가, 청상, 기아, 육아, 여자교육, 인신매매 등).

13)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舊物如何成爲頑固: 透過帝國新聞(1898-1908)看近代化理論的錯綜與逆說(‘옛것’은 어떻게 ‘완고’가 되었나?: 『제국신문』(1898-1908)을 통해 본 근대화 논리의 착종과 역설)],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제 2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2014@. 4.21(월),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 2층 회의실, (中國語:1~13)+(한국어:1~19)쪽을 참조.

[표 3] “풍속개량론” 연재 이후의 풍속개량 관련 논설·기서·별보 (*표시는 이 논문에서 새로 선별한 글)					
날 짜	호 수	수록 관	제 목	필 자	비고
1908.6.5	2705호	론설	녀즈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량홀 일	탄희싱	*
1908.6.19	2074호	론설	부인의 의복을 기량홀 일	탄희싱	*
1908.6.20	2718호	론설	녀즈의 기가는 턴리의 췌니홀	탄희싱	
1908.6.23	2720호	기서	청춘을 규중에서 늣지 몰 일	우우싱	
1908.6.24	2721호	기서	청춘을 규중에서 늣지 몰 일 (속)	우우싱	
1908.6.25	2722호	기서	청상의 정상	북촌 일 과부	
1908.6.26	2723호	기서	청상의 정상 (속)	북촌 일 과부	
1908.1.14	2590	논설	노름군의 큰 와주	탄희싱	*
1908.1.25	2599	논설	기인(棄兒) 수양	이은우 (李恩雨)	*
1908.1.31	2604	논설	과세를 두 번 호는 악풍	-	*
1908.2.7	2607	논설	식회에 신슈 께치는 악풍	탄희싱	*
1908.2.13	2611	논설	청년의게 비단옷을 넘히지 말 일	탄희싱	*
1908.2.15	2613	논설	아히 어머니를 권명홀	-	*
1908.2.16	2614	논설	아히 어머니를 권면홀 (속)	-	*
1908.2.18	2615	논설	직성형년의 악풍	탄희싱	*
1908.4.1	2651	기서	녀즈 교육의 시급론	평양 리지춘	*
1908.5.1	2676	논설	사름을 팔고 사는 만풍	-	*
1908.5.14	2687	논설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	탄희싱	*
1908.5.15	2688	논설	소설(小說)과 풍속의 관계 (속)	탄희싱	*
1908.6.5	2705	논설	녀즈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량홀 일	탄희싱	

1908.6.20	2718	논설	너즈의 기가는 턴리의췌췌흙	탄희싱	
1908.6.23	2720	기서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몰 일	우우싱	
1908.6.24	2721	기서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몰 일 (속)	우우싱	
1908.6.25	2722	기서	청상의 정상	복촌 일과부	
1908.6.26	2723	기서	청상의 정상 (속)	복촌 일과부	
1908.9.8	2778	별보	민속의 큰 관계	밀아즈 류원표	*
1908.9.10	2779	별보	민속의 큰 관계 (속)	밀아즈 류원표	*
1908.9.12	2789	별보	민속의 큰 관계 (속)	밀아즈 류원표	*
1908.10.1	2795	별보	단발에 덕한 공론	탄희싱	*
1908.10.14	2805	논설	변소 개량에 덕하야 위싱 당국자의게 경고흙	탄희싱	*
1908.10.16	2807	논설	청결의 덕하난 주의	-	*
1908.10.29	2817	논설	연극장을 급히 기량할 일	-	*

풍속개량론이 연재되기 이전에 ‘개량’을 위한 맥락으로서 한국사회 전반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스케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연재 후에는 유사한 논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표 4] “풍속개량론” 연재 이후의 비판/제언/격려의 논설·기서·별보 (*표시는 이 논문에서 새로 선별한 글)					
날 짜	호 수	수록 판	제 목	필 자	비고
1908.2.6	2605	기서	녀학싱 제군의게 권고함	김영구	*
1908.2.11	2609	기서	우리 동포의게 경고흙	슈표교 리용섭	*
1908.2.22	2619	논설	상등사회에 경고흙	탄희싱	*
1908.2.25	2621	별보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	청국 선비	*
1908.2.26	2622	별보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 (속)	청국 선비	*
1908.2.27	2623	별보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 (속)	청국 선비	*

1908.2.28	2624	별보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 (속)	청국 선비	*
1908.2.29	2625	별보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 (속)	청국 선비	*
1908.3.1.	2626	별보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 (속)	청국 선비	*
1908.3.6	2630	기서	지혜와 쇠가 능히 용맹과 힘을 제어함	북악산하 우시성	*
1908.3.7	2631	기서	지혜와 쇠가 능히 용맹과 힘을 제어함	북악산하 우시성	*
1908.3.21	2642	기서	태국신문을 구람하시기를 동포형제에게 권고함	안악군 강상규	*
1908.3.22	2643	기서	태국신문을 구람하시기를 동포형제에게 권고함 (속)	안악군 강상규	*
1908.5.17	2690	논설	주녀를 학교에 보낸 자는 국가의 죄인이 됨	탄희성	*
1908.7.9.	2730	논설	시정 개선과 인재	탄희성	*
1908.7.15	2735	별보	희망과 실행	-	*
1908.7.16	2736	별보	희망과 실행 (속)	-	*
1908.8.12	2757	논설	지물을 저축할 일	탄희성	*
1908.8.13	2758	논설	지물을 저축할 일 (속)	탄희성	*
1908.8.14	2759	논설	지물을 저축할 일 (속)	탄희성	*

「방관하는 자를 꾸지즘」이라는 제목으로 별보란에 6회 연재된 청국선비의 글은 중국 량치차오(梁啓超)의 것으로, 원작은 『청의보(淸議報)』 36호(1900)에 실린 「呵傍觀者文 이다.¹⁴⁾ 량치차오는 집, 나라, 세계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국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방관자를 혼돈과(정신없는 동물), 위기과(자기 몸만 위하는 자), 오호과(탄식과 통곡을 일삼는 자), 소마과(남을 비판하고 자기는 꾸짖지 않으면서 타인도 방관자가 되게 하는 자), 포기과(남을 의지하고 나는 바라지 않는자), 대시과(때를 기다리는 기회주의자) 등, 여섯 유형으로 분류했다.

14) 근대초기매체연구회 편역(2014), 398쪽 각주 408)을 참조.

근대 대응에 ‘방관하는 자’를 질책하는 량치차오의 글은 당시 대한제국이 당면한 문제를 청국의 문제와 연계시켜, 아시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하와이 호노루루에서 발행하는 합성신보에 기지훈 바 론설 일편’을 등재하는 형식으로 소개한 「희망과 실행」에서는 서양철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생존경쟁의 시대에 경쟁하는 자는 생존의 희망이 있고, 생존의 권리가 완전한 자는 자유를 행할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여기에는 모두 ‘태도’로서의 근대라는 관점이 관여되었다. 『제국신문』의 근대개몽론이나 풍속개량론, 이에 대한 독자의 반향이 ‘중국/서양의 논리와 일정정도 교섭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3. 젠더적 시각으로 본 ‘풍속개량론’(논설)과 ‘사건화’된 여성 기사 (잡보)

『제국신문』은 창간에서부터 국문표기의 선택과 여성독자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바, ‘풍속개량론’에서도 여성은 주요한 계몽의 대상이자 주체로 상징되었다. 여성 교육의 권유, 의복 사치의 규제, 과부 개가의 허용, 육아법의 제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잡보란의 기사는 논설에서 다루어진 소재나 화제가 동일하면서도,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잡보란에 서술된 여성의 삶은 개인성, 일상성이 바탕이 되고, ‘문제적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 경향을 보였다.¹⁵⁾ 또한,

15) 근대초기 매체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건 기사가 자극적, 선정적인 것은 『한성신보』와 동일하지만, 서술의 초점이나 정도 차이가 있다. 『제국신문』에 비하면 선정성의 정도는 『한성신보』가 현저히 높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의 논문(2014⑥)을 참조.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제시되지 않고, 기자의 눈으로 ‘매개된’ 관찰과 판단의 태도가 관찰되었다. 때로는 풍문과 전설로 떠도는 타자적 시선을 취하기도 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풍속개량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안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잡보 기사들, 특히 개가, 혼례, 가정불화, 섹슈얼리티가 ‘사건화’된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3.1. 여성 관련 풍속개량론의 전개와 양상

『제국신문』이 기획한 ‘풍속개량론’에 거론된 개량의 대상과 내용은 혼인생활(개가, 내외, 압제혼인), 미신(택일), 위생, 상업계, 온돌, 음식 먹는 습관, 자녀교육(양육 일반, 운동)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량의 대상은 여성이다.¹⁶⁾ 이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날 짜	호 수	수록 판	제 목	필 자	주제
1907.6.19	2434	논설	부인의 의복을 기량할 일	탄희성	의복
1908.6.5	2705호	론설	녀즈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량할 일	탄희성	의복
1907.6.26	2440	논설	희산구원을 성수에 맞기지 못할 일	탄희성	출산
1907.6.20	2435	논설	어린 아히 가라치는 법도	탄희성	양육
1907.6.21	2436	논설	어린 아히 가라치는 법도 (속)	탄희성	양육
1907.10.27	2530호	론설(풍속기량론) (+)	아히 길오는 방법	티극학회 원 김락슈	양육
1907.10.29	2531호	론설(풍속기량론)	아히 길오는 방법 (린속)	티극학회	양육

16) 『제국신문』에 연재된 ‘풍속개량론’에 대해서는 최기숙(2014©)를 참조. 이 글에서는 풍속개량론 연재 전후의 맥락성에 초점을 두되, 선행 논문에서 분석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해당 연재에 대한 분석을 다루기로 한다.

17) 부수적으로 여성을 다루거나 관련된 논설은 제외했다. 이는 논문의 형식적 제한을 고려해 본 논문의 주제 집중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十二)		원 김락슈	
1907.11.5	2536호	론설(풍속기량론) (十一)	아희들의 운동을 힘쓸 일		양육
1908.2.15	2613	논설	아희 어머니를 권명흠	-	양육
1908.2.16	2614	논설	아희 어머니를 권명흠 (속)	-	양육
1908.1.25	2599	논설	기오(棄兒) 수양	이은우 (李恩雨)	기아
1907.10.11	2517호	론설(풍속기량론) (二)	너희는 폐습을 갖칠 일	탄희성	내외
1907.10.12	2518호	론설(풍속기량론) (三)	압계혼인의 폐풍을 갖칠 일	탄희성	혼인
1907.10.13	2519호	론설(풍속기량론) (四)	압계혼인의 폐풍을 갖칠 일 (전호속)	탄희성	혼인
1907.10.10	2516호	론설(풍속기량론) (一)	너즈의 기가를 허힐 일	탄희성	개가
1908.6.20	2718호	론설	너즈의 기가는 턴리의 썩디 흠	탄희성	개가
1908.6.23	2720호	괴서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몰 일	우우성	개가
1908.6.24	2721호	괴서	청춘을 규중에서 늙지 몰 일 (속)	우우성	개가
1908.6.25	2722호	괴서	청상의 정상	북촌 일 과부	개가
1908.6.26	2723호	괴서	청상의 정상 (속)	북촌 일 과부	개가
1908.2.6	2605	괴서	너학성 제군에게 권고함	김영구	여성 교육
1908.4.1	2651	괴서	너즈 교육의 시급론	평양 리지출	여성 교육

내용	양육	개가	교육	의복	혼인	출산	내외	기아 수양	총편수
편수	7	6	2	2	2	1	1	1	22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풍속개량과 관련된 논설, 별보, 괴서 중에서 의상과 교육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기혼 여성이 대상이다. 논설과 괴서 총 22편 중에서 양육, 개가, 혼인, 출산, 기아수양에 관한 것이 17편이고, 나머지 5편은 의복, 여성교육, 내외풍속에 관한 것이다. 풍속개량의 대상

이 여성에게 집중된 것은 『제국신문』을 국문으로 발간하면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여성 독자를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풍속개량론의 대상으로 특히 기혼 여성에 주목한 이유는 미혼 여성의 문화가 개량의 여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혼인을 전제로 여성 문제에 접근하여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 즉 국민으로서 기혼 여성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⁸⁾ 양육과 관련된 논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여성을 미래의 국민을 양성할 아동 교육의 일차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아동은 아동 일반이 아니라 각 가정의 ‘혈연 자아’ 즉 ‘친자’ 개념이다.

2회에 걸쳐 게재한 「어린 아히 가라치는 법도」에서는 자식의 건강/장수와 성공(부귀공명)을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전제했고, 우리나라 자녀 양육 방식에 ① 음식을 때 없이 먹임, ② 법도 없이 꾸짖고 때림, ③ 거짓말하기 등의 악습과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 지식 발달, 덕성 확충을 위해 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여성은 자녀 교육을 위한 기능적 대상으로 매개되었다.

이후에 태극학회 회원 김락수가 작성한 풍속개량론 연재 속의 「아히 길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탄해생의 「어린 아히 가라치는 법도」에서 제안된 양육의 목적과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① 몸의 건강, ② 마음과 의기의 양육, ③ 자립을 위한 준비 등이 거론되었으며, ③을 위해 학교교육과 기예(재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넷습관을 속히 바리시고 문명상에 진보’할 것을 권유했다. 이어서 연재된 「아히들의 운동을 힘쓸 일」에서는 개인의 신체 건강을 국민의 의무로 위치시켰다.

1908년 2월 15~16일에 게재된 논설 「아히 어머니를 권면함」에서는 ‘어

18) 개가나 양육 문제는 모두 ‘혼인’을 전제로 사고한 결과다. 『제국신문』에서 ‘여성의 국민되기’에 대한 논의는 김복순, 『『제국신문』의 함: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학사연구』 51호, 민족문학사학회, 2013, 364~376쪽을 참조. 여기서는 『제국신문』이 여성을 국가와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한 사례로 일본 유학생 단지사건, 국채보상운동 등에 의연금을 보내는 여성에 주목한 사례를 들었다. 성금을 내낸 여성에게는 ‘근대가 지향해야 할 상등인류’의 자격이 부여되었다(최기숙, 2014③, 85쪽).

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물이라는 관점에서 태모의 태교에서부터 유아를 먹이고 재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육아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은 ‘개가다. 개가 허용(「녀즈의 기가를 허홀 일, 1907.10.10)과 개가의 당위성(「녀즈의 기가는 턴리의 썻」함 1908.6.20.)을 다룬 논설 2편과 이를 지지하는 2인의 독자가 쓴 기서(각 2회씩 4회)가 있다. 후자는 논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제로 삼아, 청상과부의 현실을 토로하고 개가를 권유한 독자 기고문이다.¹⁹⁾

의복을 다룬 경우는 부인에 관한 것이 2편, 청년에 관한 것이 1편이다. 「부인의 의복을 기랑홀 일 에서는 의복 개량의 준거로 외관의 아름다움, 위생, 경제 요소가 제시되었지만, 사실상 의복과 관련한 개량론의 핵심은 ‘사치’에 대한 경계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과 청년이 당시에 ‘사치’ 담론의 부정적 표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당시 의상과 옷감, 장식, 헤어스타일 등에 서양식과 전통식, 청국, 일본, 서양의 스타일이 공존했다는 경향도 파악된다. 논설에서는 이를 개량해야 할 문제적 풍속으로서술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선의 일상에서 의상과 패션 스타일을 매개로 세계 문화가 뿌리내리는 ‘문화적 혼종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탄희성, 「녀즈의 의복과 단장을 급히 기랑홀 일, 1908.6.5.).²⁰⁾

여성 교육을 다룬 글에는 남성(김영구)이 여학생을 ‘누의남’으로 칭하며 쓴 「녀학성 제군의게 권고함(1908.2.6.)과 여성(리지춘)이 쓴 「녀즈 교육의 시급론 (1908.4.1)이 있다. 전자는 외국 사람의 웃음을 받는 여성을 의식하면서, 서양식으로 차려입고 자유론과 애국 시사를 논하며 요리집과 연회장

19) 이에 관해서는 김복순(2013), 372~373쪽; 최기숙(2014), 95~96쪽에서 논의되었다.

20) 한국 근대 패션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20년대부터 다루고 있는데(김주리, 「근대적 패션의 성립과 1930년대 문학의 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 7집, 한국현대문학회, 1999; 김주리,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살림, 2005; 김미지,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살림, 2005, 51~64쪽; 김미선 면담 편집, 임형선·이중수·양충자 구술, 『모던 걸, 치장治裝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08; 김은정, 「1920~30년대 한국 여성 패션과 소비문화의 변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3 등), 근대초기 인쇄매체를 통해 그보다 앞선 시기의 복식사 연구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지를 선회하므로, 가능성만을 제안해 둔다.

을 전전하는 문제적 여성에게 행동 지침을 권고한 것이다. 후자는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는 여성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유행동’에 남녀의 등분이 있을 수 없고, 너즈라도 교육하얏스면’ 여중군자, 규중호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글이다.

여성 교육에 대한 독자 투고의 사례는 풍속개량론에서 여성을 보는 관점, 즉 여성을 후일의 국민이 될 아동 양육의 매개로 간주하거나, 혼인의 폐습에서 ‘구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선회한다. 이들은 어머니가 아닌 ‘여학생’을 대상으로 삼아, 차별 없는 교육과 자유행동에 주목했고, ‘국민’이 되기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탕한 여학생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제국신문』의 기사는 풍속개량론에서 다루진 여성 문제 중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된 것을 보충하면서, 여성의 교육권과 교양적 처신에 주목했다. 이는 신문의 독자가 신문의 논조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풍속에 대한 관심과 입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3.2. 사건화된 여성 개가: 자녀문제/개가반대/증매사기/불행/자결

『제국신문』에 풍속개량론이 연재되기 이전인 1907년 8월 13일 잡보란에는 관혼상제의 4례에 대한 개정, 남녀귀천을 막론한 의복 단속,²¹⁾ 30세 이하 과부의 재혼법 허용, 남녀 승려의 가취 허용 등, 중추원에서 논의된 의안이 게재되었다. 이는 논설란에 「부인의 의복을 기량할 일 (1907.6.19.)」이 게재된 후,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논한 것으로, 논설의 사회적 영향력 또는 신문과 제도의 관련성을 환기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21) 의복 단속은 총 2항에 걸쳐 논의되었는데(‘부녀의 의복 스치와 남즈도 물론 귀천하고 단속 의복과 단속으로 만든 신을 엄금할 스’; ‘인민 남녀를 물론하고 의복제도를 균일케 기명할 스’), 특히 ‘부녀의 의복 사치’가 별도로 논의된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제국신문』 잡보란의 여성 관련 기사 중에는 논설란에 게재된 풍속개량론의 내용과 대치되거나, 논설에서 주목하지 못한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예컨대, 개가 허용은 ‘풍속개량론’ 연재의 첫 번째 논제(『녀자의 기가를 허힐 일』 1907.10.10.)로 다루어질 만큼 주요한 사안이었는데, 같은 시기 잡보란에는 개가 여성²²⁾이 겪어야 했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사건화’되어 기재되어 있어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²³⁾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잡보란에서 여성의 개가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다루어졌다. 예컨대, 잡보 기사 『金妾背夫』(1907.10.6.3면)에는 어머니가 개가하여 우는 아이(3세)가 가궁하다는 기사를 게재해,²⁴⁾ 개가가 ‘유아’에게 미친 부정성을 환기했다. 이 기사는 개가를 권유하는 근대 논리의 이면에, 이것이 일상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잡보 기사는 이를 사회적 문제나 제도/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유아-개인’의 불행으로 조명함으로써, 개가로 발생한 가정 문제의 책임성을 개성에게 환원시켰다.

둘째, 논설에서는 개가를 주장했지만, 과부가 된 여성은 여전히 친정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할 경우 개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양반 체면’을 중시한 아버지 때문에 개가하지 못한 여성 기사가 그 예다.²⁵⁾ 풍속과 법은 여성의 개가를 허용하고 지지했지

22) 잡보란에서 여성의 개가 이유가 밝혀진 경우,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허야 싱활힐 도리가 업는고로’ (『쟁 먹고 알 먹고』 1908 11.12. 2면) 『飲瀨目斃』(필자 주: 自斃의 오자로 보임) (1908.1.7.2면)

23) 근대초기 과부관련 기사의 사안과 빈도수에 대해서는 이형대, 『근대계몽기 과부(寡婦)에 대한 시적 표상과 매체적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23쪽의 표를 참조. 여기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국한문본), 『매일신문』 등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과부와 관련해 빈도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재산분쟁으로, 과부의 재산 강탈 사건 기사는 전체의 30%다(총 건수는 39건. 백분율은 필자가 계산함).

24) ‘중서 □□권골 등디에 스는 김상집씨의 소실이 습세 녀아를 두고 기가허야 굶는디 그 아히의 어미 부르고 우는 모양은 참 가궁허다더라’ (『金妾背夫』 1907.10.6.3면)

만, 일상의 차원에서는 여성의 주체적 의사결정만으로 행할 수 없었던 실상을 보여준다.

셋째, 개가 중매에 관련된 사기와 피해 사례다. 당시 여성이 중매인/상대 남성과 경제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에 노출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재혼 남편이 여성의 돈을 떼먹은 사건,²⁶⁾ 상대 남성이 집을 산다고 재혼녀에게 돈을 요구한 뒤 도주한 사례²⁷⁾가 속출되었다. 여성과 만나본 뒤 파혼하거나,²⁸⁾ 첩 중매를 서겠다면서 중간에서 가로채 동거하다가 내쫓은 사건²⁹⁾도 발생했다.

넷째, 논설에서는 개가를 권장했지만, 잡보란에는 재혼 여성의 불행을 다룬 기사가 빈번히 게재되었다. 재혼 여성에 대한 박해과 구타³⁰⁾, 학대,³¹⁾ 혼인생활 불만으로 인한 거둬진 개가 등, 불행한 일상과 파경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시집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여성이 친정에 있다가 도주하자, 남편이 와서 재혼 경비를 요청한 기사는 파경으로 끝난 재혼가정의 불행을 조명했다.³²⁾ 개가한 여성이 반드시 행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섯째, 논설과 기서에서는 여성의 개가를 권장했고, 잡보란을 통해 당시에 실제로 재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남편의 사망 후에 자결하는 여성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를 치하하는 관점도 유지되었다. 『제국신문』은 남편을 따라죽은 여성을 ‘열녀’와 ‘열부’로 호명했다.³³⁾ 이는 개

25) 『세상 소문도 못듯나』 1908.9.8.1면.; 『집에 두면 조혼 일 잊지』 1908.11.4.2면. 등

26) 『엇던 과부』 1907.11.26.2면.

27) 『헛 먹고 알 먹고』(1908 11.12. 2면)는 재혼 상대인 윤씨가 집 살 돈 사천냥을 받아 투식하고 사글세를 얻은 뒤 도주한 사건이다.

28) 『마음에 업스면 고만이지』 1908.9.4.2면.

29) 『선하심 후하심』 1908.9.3.2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재판소에 정소했으나 기각되었다.

30) 『무단히 너편네를 자려』(1909.1.12.3면)는 출가한지 3일 만에 과거하게 된 여성이 김모에게 개가했다가 구박을 견디지 못해 이웃에 피신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구타하여 사경에 이른 사건이다.

31) 『함부로 기가만 헛여』 1908.11.22.3면; 『계집 일코 부비 밧아』 1908.10.7.2면.

32) 『계집 일코 부비 밧아』 1908.10.7.2면.

가를 주장하는 입장과 명백히 대치된다.

여섯째, 과부보쌈은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으며,³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진원이 되었다.³⁵⁾ ‘언의 동력에 과부가 잇다 하면 아조 주인 엽는 물건으로 알아’ ‘이웃집 무퇴빅을 소취하야 어두은 밤에 남의 집에 돌입 겁탈하야 짜셔 동히기로 능스를 삼으며 거긔 포도의 모양을 씹여 공갈하야 썩어서 오기도 위쥬’(『訓禁縛寡習俗 1907.6.21.3면)로 한다는 서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과부의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았다.

‘풍속개량론’에서 개가는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해 개량의 대상으로 논의되었지만, 일상에서 개가는 다기한 문제와 연루되어 존속되었으며, 사건을 파생시키는 사회 문제의 진원이었다.

3.3. 사건화된 혼례: 조혼/사치/매매혼

풍속개량론에서 개량되어야 할 혼인 풍속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 것은 조혼과 압제혼(1907.10.12.~13)이다. 조혼 폐해는 ‘압제혼’의 문제 안에 포섭되어 논의되었다. 그런데 잡보란에는 논설이 주목하지 못한 다기한 문제들, 예컨대, 조혼, 사치혼, 매매혼에 대한 사건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첫째, 조혼의 폐해를 다룬 사건 기사다. 조혼금지에 관한 기사가 잡보란에 실린 것은 논설란의 ‘풍속개량론’보다 앞선다.

* 직작일에 초척을 나리읍서 갈아스디 인칭이 삼십에 안희를 두고 이십에

33) 근력에 엽는 렬녀, 1909.1.12.2면; 「가위 렬녀로군」 1909.2.21.2면; 「두 렬부 포양의 보청」 1908.4. 14.3면.

34) 「訓禁縛寡習俗」(1907.6.21.3면)은 과부보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지의 기사다.

35) 「사름 죽이고 도망」(1908 10.27. 2면)에서는 보쌈당하는 과부를 본 과부의 친척이 상대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시집가는 것은 넷적 삼타의 성혼 법이거날 근력 조혼하는 폐가 나라 빅성의 병 근원이 막심하고로 년전에 금지하는 령이 잇스되 이썩것 실시치 못하니 엇지 유스의 허물이 안이리오 이제 유신하는 썩를 덩하야 풍속을 기랑함이 가장 급히 힘쓸 바이라 불가불 고금을 참작하야 남즈는 만 십칠세와 녀즈는 만 십오세로 비로쇼 가취함을 허하되 름준하야 억임이 업게 하라 하옵섯더라 (『早婚禁止의 詔勅』 1907.8.17. 2면)

* 조칙을 나리스 조혼하는 폐를 금하옵신 말은 별항에 기지하얏거니와 작일 너부에서 그 조칙 스의를 번등하야 각도에 발훈하얏다더라 (『內訓各道』 1907.8.17.2면)

조혼금지는 이미 갑오개혁(1894) 때부터 법제화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잡보란에서는 이를 문제 삼거나 재차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지식이 있다고 인정받은 지식층이 자녀의 조혼을 성사시킨 사례를 기술해 조혼금지령을 위반했다고 서술한 기사(『열살 전 혼인』 1908.10.7.2면)는 법률시행과 일상생활의 ‘차이’를 반영한다.

둘째, 사치스런 혼례문화를 비판한 경우다. 정삼품의 리응직이 사치스런 관혼상례를 금해야 한다고 현의한 내용이 가결되었다는 내용과 레문의 변경이 쉽지 않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게재된 후에, 리응직이 관혼상례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중추원에 현의한 기사³⁶⁾가 그 예다. 기사에서는 사치스런 혼례식을 비판하고 검박한 혼례문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혼례의 치단은 반다시 우리나라 토산 필육으로 염식하야 쓸 일/ 납치는 의전례하야 그날 아침에 먼저 행하고 전과 갖치 그전날 전역에 납치하던 폐

36) ‘정삼품의 리응직씨가 현의한 관혼상례 폐 중에 전일 사치하고 변화한 폐습을 금단 하즈는 일은 회의에 가결은 되얏스나 레문을 줄디에 변경하는 것이 대단 중대하야 하야 찬의중으로 위원을 선평하야 가히 폐지하고 인존홀 일을 연구하야 이다음 회의에 제출케 하얏고’ (『樞院會議의 概聞』 1907.5.17.); 『請開儀式』 1907.5.23.1면.

와 해외 불노름하던 폐를 엄금할 스/ 신랑의 스모관대와 신부의 슈식 장복 등은 일체 엄금하고 단안형례시에 신랑신부가 통상복을 납계할 스 (생략) (『請開儀式 (1907.5.23. 1면)

같은 날 2면에는 관혼상제의 변화, 사치를 금하지는 일은 자세히 조사한 후에 결의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별도의 기사가 실렸다(『樞院開議』). 이 기사가 소개된 뒤에, 부찬의 홍우석이 이를 논박한 일과 이에 대해 남북촌 선비들이 사론을 일으킨다는 기사,³⁷⁾ 중추원 회장 서정순이 이 일로 회의에 참석했으나, 결정하지 못해 유안했다는 일³⁸⁾, 김사묵이 이 건에 반론하자 서정순이 다시 반론한 일,³⁹⁾ 이후 제도 변경에 관한 사후 진행 등에 관한 기사⁴⁰⁾가 소개되었다. 여러 번 신문에 게재된 것은 관혼상제의 의례 변경에 대한 동의 여론이 쉽게 조성되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셋째, 매매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기사다. 매매혼의 주체는 여성의 부/모와 (혼인한) 언니/ 오빠 등 가족과 혈연이 대부분이지만, 비혈연 중매인,⁴¹⁾ 혼인을 빙자한 매매혼 당사자⁴²⁾도 있다.⁴³⁾

매매혼의 대상이 된 여성의 연령은 16세~22세로 미혼/기혼 모두 해당된다. 가족이 매매혼을 주선한 이유는 돈 때문인데, 매매 금액은 200~20,000냥⁴⁴⁾으로 편차가 있다. 매매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37) 『請其正誤의 不聽』 1907.5.28.2면

38) 『樞院改議의 概要』 1907.5.29.2면

39) 『樞院開議의 後聞』 1907.6.5.2면.

40) 『樞院建議內閣』 1907.8.20.2면.

41) 『계집 썩앗기고 돈 일코』(1908.8.25.2면)는 중매인에게 3100냥을 주고 ‘계집’을 3,100냥에 산 지 얼마 안 되어, 친모가 나타나 계집을 데려가자 돈을 찾아달라고 고소한 사건이다.

42) 『계집을 팔아 먹어』(1908.9.5.)는 작첩동거 하겠다며 리씨의 딸(21세)을 데려간 김현철이 140원에 팔자, 여자의 부친이 경찰서에 호소한 사건이다.

43) 가족과 친척 이외의 자가 돈을 받기 위해 여성을 유혹하거나 속여 매매하되 ‘혼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3.5절의 ‘인신매매’ 항목에서 다룬다.

44) 기사에 명시된 매매 금액은 200, 400, 500, 3,000(중개비 900냥), 3100, 3150, 5000, 6,000, 20,000냥, 140(700)원 등이다. 『어미가 썩을 팔아』(1908.6.12.2면)는 ‘어미

의 정황은 서술되지 않았으나, 매매된 여성이 부모나 가족의 명을 어기기 어려운 연소자이고, 매매자가 범법자로 고소된 정황상, 강제성을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 매매된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부모나 남편의 ‘호소’(현대적 의미로는 법적 고소)로 혼인이 파기되었으며, 팔려가서 다시 매매되는 등 불행한 삶을 떠안았다.

매매혼이 기사화된 이유는 이것이 패륜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지만, 매매 과정상의 문제로 경찰서나 재판소에 정소되거나 자살이 발생하는 등 ‘사건화’되었기 때문이다.

① 북부 안동 근처에 사는 전춘관 김모는 일전에 그 친구 모씨를 덕혀야 말혀되 나는 근일에 벼살도 못혀고 가세는 점점 탕퓌되야 슈다 권술이 살 슈 업는 터이라 나의 십칠세 된 녀식을 일본인 고등관 줌에 세력잇는 자에게 줌 덕혀야 달나 혀는 고로 그 친구가 김씨의 비루흔 언스들 줌칙혀고 피츠 상중 혀기를 거절혀앗다더라 (『살□륜은 쫘 괴라떡을 경륜 쑤』 1908.4.8)

② 동대문 밖 왕십리 사는 슈모의 안혀가 십륙세 된 쫘을 상년 봄에 초전 골 사는 류룡순에게 돈 륑천 량을 밧고 판 후에 스외의 덕을 만히 볼 줄로 알앗다가 소망에 츠지 안이혀 일이 잇슴에 즈쵸 가서 야료혀죽 류모가 그 괴 로움을 견디지 못혀야 근일에 그 계집을 쫘츠보너엿더니 그 계집의 형이 명

가 혼인한 딸을 500냥에 팔고 아내의 행방을 붙는 사위에게 도리어 딸을 찾아내라고 호통 치다가 사위의 고소로 경찰서에 수감된다. 「슈양쫘이 변혀야 쫘이 되어」(1908.6.19)에서는 200냥에 슈양딸을 판다. 「형이 아오를 팔아」(1908.8.14.2면)는 혼인한 언니가 여동생을 류가에게 3,150냥에 팔자, 류가는 오가에게 5,000냥에 되팔고, 어머니는 딸을 찾아달라고 경찰분서에 호소한다. 혼인을 매개로 한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모두 남자에게 판 것으로 보아 매매혼일 가능성이 높다. 「기부 즈결」(1908.8.13.2면)은 기생의 친모가 상경하여 사위(팽의균)에게 딸을 영구히 기생으로 사용하려면 2만냥을 내라고 다그치자, 팽씨가 돈이 없고 이별이 원통해 아편 먹고 자결한 사건이다. 「계집을 팔아떡어」(1908.9.5.)에서는 혼인하겠다는 데려온 여자를 140원에 파는데, 당시 화폐로 1원은 5냥이므로, 140원은 700냥이다. 「계집 치고 경찰서에 가」(1909.1.10.2면)에서는 립소사의 집주인이 400냥에 여자를 라씨에게 팔자, 상대가 가난한 것을 본 여자가 돌아온다. 라씨는 여자를 찾아와 구타하고, 여자는 이를 경찰서에 호소한다. 정황상 매매혼에 해당한다.

부지 모모의 소기를 인하여 서부 정동 사는 엇더흔 술장스에게 또 삼천 량에 팔고 오모□ 구문 구빅여 랑을 멋었는지라 그 계집의 어미가 오모를 덕히야 그 먹은 구문 돈을 도로 너라 하고 연일 가서 작경히는 중이라더라 (『증싱갓 혼 놈들』 1908.10.18.2면)

③ 경귀 진위군 일탄면 신장리 사는 리규성 씨가 즈기 아오 리규덕 씨를 장가드릴 작정으로 그 동리 사는 류치습이라 하는 사름의 락데와 혼인을 덩히야 음력 상년 십일월 이십일에 성례하기로 톡일하고 각종 선치 몇십원의 치를 즈담히야 보너엇더니 류씨가 무삼 흥계를 너여 그 락데를 슈원군 사는 박청룡이라 하는 자에게로 다시 혼인히지라 리씨가 그 스실을 드러 히도군에 호쇼히앗더니 류모가 언의 곳에 의세하고 리씨로 히야곰 락과식인고로 리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직작일에 경성 디방지판쇼에 고쇼히앗다더라 (『누의 하나를 두번식 팔아』 1909.1.30.2면)

①은 가난을 이유로 세력 있는 일본 관리에게 딸(17세)의 중매를 부탁한 김씨가 친구로부터 절교당한 내용이다. 기사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김씨가 청한 것은 ‘매매혼’으로, 사회적으로는 명백한 패륜행이다. ②는 16세 딸을 600냥에 판 어머니가 사위 덕 보기를 기대했다가 ‘소망에 차지’ 않아 야료를 부리자, 남편이 아내를 내쫓은 사건이다. 그 형(언니)은 여동생을 다시 술장사에게 3,000냥에 팔았고, 중개자에게 900냥을 주었다. 그러자 매매된 여자의 어머니가 중개인에게 비용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워 기사화된 것이다. 제목에서 기자는 여자의 모친과 언니를 ‘증싱 갓혼 놈들’이라고 평했다.

③은 리씨와 ‘락데’(누이동생)와의 혼사를 결정하고 ‘몇십원’의 돈을 받은 류씨가 누이를 다른 이에게 혼인시키자, 리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혼인에 돈이 오간 점, 오라비가 누이를 두 사람에게 이중 혼인하게 한 점 등은 어린 미혼 여성이 매매혼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언제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업은 덕음 받게 업나 (1908.6.21)』는 젊은 과부(25세, 량소사)와

의사 가족 관계를 맺어 수양남매처럼 지낸 뒤, 여자를 돈 많은 한씨에게 첩중매 하겠다고 허언한 최영삼의 사기 사건이다. 최씨의 주선으로 양씨는 한씨에게 은가락지 등물을 받고 선도 보았지만, 한씨의 형세는 실로 가난했고 매음까지 요구했다. 이에 분노해 친정에 돌아오자, 한씨가 다시 찾아와 ‘쫄 하나를 두 곳에다 팔고져’ 한다며 4,250냥을 달라고 위협했다. 경찰서 조사에 의해 이 사건은 양씨와 수양남매를 맺었던 최영삼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사례는 논설을 통해 압제혼의 문제가 비판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여전히 압제혼이 존재했으며, 부모와 친족에 의해 매매혼이 성립했음을 보여준다. 잡보란이 조명한 ‘압제혼’의 실상은 논설에서 조명한 바와 같이 ‘즈녀를 스랑흔다고 십 세 너외부터 결혼’(「압제혼인의 폐풍을 꾀칠 일」, 1907.10.12)시킨 것이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금전을 획득하려는 매매혼의 형태였다. 잡보란에서는 이를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형태로 사건화했지만, 이를 일람해볼 때, 당시 혼인문화의 가장 심각한 폐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당사자성이 배제된 ‘매매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여성은 물론 성인 여성, 과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3.4. 사건화된 가정불화: 작첩/통간/폭력/가출

『제국신문』 잡보란의 여성 관련 기사 중에는 가정불화와 관련된 사건이 패턴화되어 서술되었다. 사건 발생의 빈도수나 심각성의 차원에서 가정불화는 주요한 여성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설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개량’의 대상으로 삼은 바 없다. 예컨대, 작첩 문제는 갑오경장 이후 일부일처제가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행, 사기 등에 연루되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혼외 성관계를 둘러싼 통간 문제, 고부갈등과 가정 폭력, 다기한 가정불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이는 논설란을 중심으로 근대성을 논의할 때, 배제되는 일상성과 여성 문제를 환기하면서, 논의가 협소해질 위험성을 방증하는 사례다. 잡보란은 이러한 취약점을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잡보란에 게재된 가정불화 사건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첩과 관련된 가정불화 사건이다. 여기에는 고급 관리의 처첩 갈등에 연루된 각종 스캔들을 비롯하여,⁴⁵⁾ 여전히 존재하는 다첩(多妾) 문화,⁴⁶⁾ 당사자성이 배제된 첩 혼사와 파혼,⁴⁷⁾ 첩의 자살, 첩에 대한 처의 구타,⁴⁸⁾ 정실부인에 대한 첩의 무고⁴⁹⁾ 등이 해당된다.

둘째, 혼외 성관계(통간)로 인한 가정문제다.⁵⁰⁾ 기혼여성의 가출과 통간,⁵¹⁾ 혼외 성관계로 인한 출산,⁵²⁾ 친자확인 문제⁵³⁾, 통간이 발각된 이후

- 45) 「도로혀 불악희」(1909.2.4.3면)는 대신의 별실에 뇌물을 주는 것은 물론, 별실이 이를 광대 치장에 소비한 사례, 정실이 기생 출신의 별실을 야단치자, 부인에게 대든 기생의 ‘풍파’가 낱낱이 신문에 기재되어, 세간의 흥미로운 스캔들로 소비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삼원통혼 일이 잇섯노」(1908.7.9.3면)는 35세 여성이 리원하의 소실이라는 편지를 맨 채로 관립한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기사다. 7월 12일(「리시 압상」)에는 여성이 아편을 먹고 자살했다고 기술했으며, 리원하가 경시청에 압상되었다고 적었다. 그 밖에 관리의 첩과 관련된 스캔들에 해당하는 기사로 「狂蝶採葉」(1907.11.28.3면); 「貞夫人不貞」(1908.1.1.2면) 및 이 논문의 각주 57)번의 사례가 있다.
- 46) 「첩이 원슈야」(1908.7.22.2면)는 첩(장소사)이 늙자 젊은 첩을 두려고 장소사의 집 문권을 일본인에게 전당잡혀 쓴 민씨를 장소사가 한성재판소에 정소하여 수감된 사건이다.
- 47) 「선하심 후하심고」(1908.8.11.)는 상처한 죄씨가 가난한 류씨를 첩으로 들이면서 혼인비용을 모두 감당했으나, 혼인직전에 류씨의 부모로부터 파혼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당사자 류씨는 부모에게 퇴혼하고 다른 곳에 혼인하면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므로, 퇴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 48) 「□다 몰고 웨 썩려」(1908.10.22.2면)는 소실(28세)과 한 방을 쓰던 부인이 어느 날 별실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다가 별실 친척의 신고로 경찰서에 압수된 사건 기사다.
- 49) 첩이 정실부인을 모함하여 ‘공갈사건’으로 변진 사건 기사(「첩은 란가의 장본」, 1909.1.30.3면)는 작첩 문제가 단지 가정 내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문’과 ‘평판’으로 얽힌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0) ‘통간’이 야기한 부부불화 이외의 형사적 문제는 3.5절에서 다룬다.
- 51) 「남의 꼬임에 빠져」, 1908.6.2.; 「서방 바리고 도망혼 계집」, 1908.8.26.2면.
- 52) 「형량외입장이」, 1908.9.10.1면. 부유한 양반이 형량 계집을 총간해 사내아이를

여성에 대한 구타⁵⁴)와 축출,⁵⁵ 여성에 의한 남편의 총상,⁵⁶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⁵⁷) 등이 함께 기술되었다.

셋째, 부부싸움(‘첩-남편’의 싸움 포함)으로 인한 사건 기사다. 부부싸움 후 아내가 도주하자, 아편을 먹고 자살기도 한 남편에 관한 기사(「계집 일코 아편 먹어 1908.6.18.」, 남편과 다툰 별실이 아편을 먹고 자살 기도한 사례(「심스 불평흔디는 료리 먹나」, 1908.8.4.2면), 형편이 어려워진 남편이 시골에서 살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다 재산 문제로 다툰이 된 사건(「돈 업서지자 첩도 리별」, 1909.2.4.3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재산과 관련된 불화다. 남자의 가산이 줄어 별실과 불화하고 결별 선언을 받은 사례,⁵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 문제⁵⁹) 등이 기사화되었다.

다섯째, 가정 폭력 사건이다. 유혹에 넘어가 기출했다가 돌아온 아내를 구타한 남편의 행동을 기술한 기사(「남의 꼬임에 빠져 1908.6.2」)는 남편의 구타를 ‘문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아내의 ‘두 다리를 동여미고 장목으로 쥘되랄’를 든 남편의 처신은 명백한 폭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⁶⁰ 기사의 초점은 기혼 여성이 ‘남의 꼬임에 빠져’ 기출했고 사실상의

남자, 부인이 시기하여 행랑 내외를 내쫓고 아이를 뒷방에 따로 두고 우유를 먹인 기사다.

53) 「고목싱화(枯木生花)」, 1908.5.20.2면.

54) 「어느 건중 서방 안인가」(1908.11.11.3면)는 소실을 얻어 실내(아내)처럼 대접하던 협판이 소실의 잠통을 목격하여 구타하자, 소실이 죽을 결심으로 절곡한 사건이다.

55) 「비취도 이제 놀깃지」(1909.2.3.2면).

56) 「적반하장」(1909.1.30.3면)에서는 통간이 발각되자 아내가 남편을 룡혈포로 쏘아 부상을 입히고 체포된 사건이다.

57) 「정이 깊혀 문안 가지」(1909.1.19.3면)에서는 대관의 별실(23세)이 연흥사 광대의 아이를 잉태한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기술했다. 궁내부 대신 민병석의 별실 비취와 연흥사 광대의 관계가 세간의 스캔들로 회자되었음은 이에 대한 정정 기사(「슈문경오」, 1909.2.6.)와 후속기사(「비취도 이제 놀깃지」, 1909.2.3.2면.; 「망풍도 주흥라나」, 1909.2.9.2면.; 「다시 안그러면 도치」, 1909.2.13.3면)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언론에는 아직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8) 「리씨단연(李氏斷緣)」, 1908.4월.29.2면.

59) 「리씨정경(李氏情景)」, 1908.5.20.2면.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집중되었다. 가정 내 여성의 인권이 취약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기혼 여성(아내, 첩 포함)의 가출 문제다. 여기에는 혼인한 아내⁶¹⁾와 첩(별실),⁶²⁾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⁶³⁾도 포함된다. 결혼생활을 종료하고 싶었을 때, 여성이 무단가출하는 형식으로 의사표현을 한 경우가 포착되며, 화해하지 못한 경우 남편이 경찰서에 호소하기도 했다.⁶⁴⁾ 가출한 부인을 찾는 남편의 입장에서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가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많지만, 드러난 사례로 보면 빈곤,⁶⁵⁾ 시부모 학대⁶⁶⁾, 남편의 작첩,⁶⁷⁾ 혼외 성관계로 인한 자발적 가출⁶⁸⁾, 타인의 유혹⁶⁹⁾ 등이다.

일곱째, 가정불화에 관한 사건 기사는 위의 몇 가지 사안이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했다. 남편이 처의 혼외 성관계를 의심해 구타하여 압교된 사건(『효유방송 1908.8.5.3면), 관리 아우의 별실이 다른 관리의 아우와 잠통한 사건에 청인 상인과의 구타사건이 연루된 사례(『기소리 천년,

60) 「한 번에 사름 둘 식 죽여」(1908.11.11.2면)는 오늘날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61) 「손희비 추급의 호소」 1908.8.5.3면.; 「관인이 유부녀를 유인히」 1909.1.20.2면.
 62) 「첩을 차차 달나 호소홀」 1908.8.5.2면; 「십년 도망이 없다더니」 1908.8.22.2면.
 63) 「계집이 서방을 바러」 1908.8.2.; 「일녀 작첩자 도사」 1909.1.12.2면 등.
 64) 「세과부로 단이는 계집」 1908.8.11.
 65) 「십년 도망이 없다더니」(1908.8.22.2면)는 리경환과 동거하며 딸을 낳은 김소사(동거 7년, 딸 3세)가 가세 빈한함을 혐의하여 딸과 도주한 사건이다.
 66) 「식집 마다고 도망질」 1908.10.6.2면. 「엇지면 그다지 박절훈가」(1908.10.30.)는 어느 대판의 부인이 며느리를 박대하고 인두로 지지고 가위로 찌르자, 며느리가 기부에게 유서를 쓰고 도주하며 전전하다가 친부가 냉정히 거절하자 간수를 먹고 자살한 사건이다. 「식어미 역정에 청국으로 가」(1908.12.16.2면)는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은 여성이 청국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67) 「부인이 시키는 무엇이야」(1908.10.11.2면)는 남편이 젊은 소실을 얻자 자녀를 두고 도주한 부인에 대해 '시기', '즈너를 모다 버리고 도주' 등의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68) 「계집이 고이훈 연이지」 1908.11.7.2면; 「살기스려 도망혔나」 1909.1.13. 「죽일 연이라고」(1908.11.8.3면)에서는 여성(30세)이 자식(7세)을 두고 도주했다.
 69) 「관인이 유부녀를 유인히」 1909.1.20.2면. 그러나 여성의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도 있다.

1909.2.14.3면), 유부녀가 모친, 간부와 합세해 본부를 살해한 사건(『綱常之變』 1907.8.1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문제와 더불어 『제국신문』의 잡보 기사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⁷⁰⁾

첫째, 가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가정생활의 실체를 반영한다. 예컨대, 여성의 가출을 일종의 ‘유괴’로 간주해 서술한 것⁷¹⁾은 처를 찾으려는 남편의 입장을 반영한다. 아내의 생사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재취혼례를 치른 기사⁷²⁾는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입지를 시사한다.

둘째, 남편 없는 여성의 인권문제다. 대부분은 과부이지만, 남편이 일본 유학을 가서 혼자 남은 여성에 대한 유혹, 사기, 학대 사건도 있다.⁷³⁾ 돈 많은 과부를 첩으로 들어 집과 재산을 빼앗아 내쫓은 기사는 과부의 취약한 사회적 입지를 반영한다.⁷⁴⁾ 40세 과부가 20세 ‘아히 김가눔’과 동거하자 친척은 물론 기자조차 ‘남붓그러온 줄 모르고 점점 추흔 힝실을 더흔’ 것으로 기술한 과부의 사생활은 ‘연애’가 아닌 ‘통간’으로 간주되어, 가십거

70) 근대초기 매체에서 여성을 둘러싼 사건 기사가 대체로 부부문제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게재된 것은 『한성신보』에서도 공통된다. 다만, 아래에 분석한 ‘여성적 입장’ 또는 ‘여성 독자에 대한 고려’는 『한성신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성신보』의 여성 관련 기사에 관해서는 최기숙, 2014⑥를 참조.

71) 「손희비 휴급의 호소」(1908.8.5.3면)는 ‘리명삼이라흐는 자이 상년경에 저의 계집을 일코’라고 서술했으며, 남편은 이웃 여성이 처를 ‘유인’한 것으로 의심한 바, 여성의 가출을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러한 남편의 견해는 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성의 가정 복귀에 대해서도 ‘그 계집은 다른 곳에서 차져주었’다고 서술함으로써, 기혼여성을 미성숙한 존재, 또는 아동처럼 간주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72) 「혼인에 기침이 상좌」, 1908.10.9.2면.

73) 「서방잇는 계집을 유인히」(1908.10.10.2면)는 남편이 유학간 사이에 감언이설로 동거를 제안한 이웃 남자를 따라 40원을 가지고 갔으나, 술장사 영업을 강제하며 학대를 받다가, 견디지 못해 경시청에 호소한 사건이다.

74) 「구씨의 허욕」, 1908.9.25.2면. 「윤씨 피착」(1908.11.17)에서도 과부와 작첩통거한 남자가 4천냥을 은닉하여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잡힌 사건이다.

리로 기사화되었다. 동거하던 남자가 헤어진 과부를 찾아와 다른 남자와 희롱하는 것을 목격하고 남자들끼리 폭행한 사건 기사(「첩 싸움을 희」 1908.10.11.2면)에서 여성 당사자의 음성은 배제되었다. 개가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매체에서도 이를 권장했지만, 혼인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는 여전히 사회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신문』의 몇몇 기사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관점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꽃이 나뭇의 늙음을 원망」(1908.6.19)은 57세의 남자(함석구)가 17세 안소사를 작첩동거했으나, ‘함씨는 가세도 지빈홀췌 안이라 나이 늙어 다시 여망이 업고 다만이 청춘을 헛도히 늙힐 췌’이라며 여자가 경찰분서에 호소한 사건이다. 경찰서에서는 안씨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함씨는 이를 거절했다. 작첩동거의 자세한 과정은 서술되지 않았으므로, 남성의 일방적 매매였는지,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가 무시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기사는 여성이 파혼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일부함원(一婦含冤)」(1908.8.12.)은 과부 보쌈을 당한 김소사(23세)가 무뢰배들을 구타하여 ‘병신이 되게 하고 도망’친 후에 군수에게 호소하자, 처음에는 호의적이던 군수가 무뢰배의 등소를 받아 여성을 낙과(落科: 소송에서 짐)시킨 사건이다. 김소사는 남편이 살았을 때 입던 의복과 관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상경해 대심원에 호소했다. 대심원에서는 본도의 판결서를 가져오면 설원해주겠다고 퇴각을 요청했다. 이 기사는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적어, 여성 문제에 대한 『제국신문』의 관심을 표현한 사례다.

넷째, 가정 내의 아동 학대의 사례다. ‘풍속개량론’에서는 아동을 ‘가정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지만, 친자 살해 기사⁷⁵⁾는 당시 취약했던 아동의 인권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이상은 여성독자를 고려했던 『제국신문』이 잡보란에 사건화된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중층성(가부장적 시선, 여성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

75) 「무죄빅방」(1908.9.3.2면)

주,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청취 기능)을 반영한다.

3.5. 사건화된 섹슈얼리티: 강간/스캔들/기생/매음(위생·범죄)/인신매매

『제국신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건 기사 중에는 섹슈얼리티, 즉 여성의 육체적 성을 매개로 발생한 사건 기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같은 시기의 『한성신보』에서도 발견되는 바,⁷⁶⁾ 근대 초기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주로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공론화되는 과정을 시사한다. 이는 강간, 화간(통간), 유명인에 연루된 성적 스캔들, 기생, 매음(위생, 범죄, 스캔들), 인신매매 등의 소재로 범주화된다.

첫째, 강간(강간 미수와 성추행 포함) 기사다. 여기에는 유부녀(첩/별실 포함)에 대한 유희⁷⁷⁾과 납치,⁷⁸⁾ 일본 여성에 대한 조선 남성의 겁간,⁷⁹⁾ 일본 남성에 의한 조선 여성의 강간,⁸⁰⁾ 순사의 죄수 강간,⁸¹⁾ 집단 강간⁸²⁾, 여성에 의한 여성의 강간 중용 사건⁸³⁾이 포함된다. 당시 강간은

76) 최기숙(2014©)의 연구를 참조.

77) 「유부녀를 통간희」(1908.9.6.2면) 제목과 기사에는 ‘통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강간의 혐의가 있다. 남자는 50세이고 여자는 ‘장님’ 친척을 도우러 온 17세 조카며느리다. 「뽀마즈 짜지(批類當然)」(1908.3.20.)는 친구의 별실에게 수작을 걸다가 뽀를 맞고 의관을 찢긴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네가 당신 친구의 계집 뿐 아니라 또한 힘음하는 창녀가 안이었던 엇지 이갓치 무례한 흥동을 하나뇨”라고 항변했다.

78) 「남의 계집을 유인희」(1908.8.22.2면)는 남자 둘이 시골로 남의 계집을 유인하러 갔다가 탄로되어 경찰서에 피착된 사건이다.

79) 「일녀를 겁간」(1908.8.13.2면)은 과징장수 박원순이 손님으로 온 일녀에게 ‘네가 일본 오십전 짜리 갈보가 안이나 하며 이 림금 한기에 쏘흔 오십전식 하는 것이니 너와 상환하느 하고 무쌍히 희롱하다가 전방으로 더블고 들어가서 겁간’한 사건이다. 일녀는 경찰서에 호소했고, 박가는 압수 신문을 받는 중이라고 기술했다. 일녀를 겁간한 근처에 ‘갈보’에 대한 무시의 관점이 매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80) 「蠻行獸習」 1908.2.14. 일본인이 13세 ‘계집 아희’를 강간하려다 입과 음문에 중상을 입히고 피착된 사건. 「일병의 부녀 겁간(日兵劫奸婦女)」(1908.4.8.)에서는 일병이 부인을 자주 겁간하자, 문중에서 부인을 일병에게 ‘영영 허급하야 쥬었다 더라’로 마무리되었다. 정황상으로 보나 언론의 입장에서나, 피해 여성의 인권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일인만형」(1908.10.15.2면) 등이 있다.

81) 「강간처역(強奸處役)」 1908.5.28.1면.

명백한 범죄였다.⁸⁴⁾

「계집쟁기고 돈쟁기고」(1909.2.23면)는 작첩하려던 여성을 아전에게 빼앗긴 남성이 여자를 되찾으려다 사기 당한 사건이다. 이 기사에서 여성을 강간한 아전에 대한 처벌이나 당사자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었다. 강간 위기를 겪은 부인을 살해하고 집에 방화한 남편이 15년 징역을 선고받은 기사(「량로상풍(兩廬傷風)」 1908.5.16.)는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남편의 분노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사회 풍조를 반영한다. 의병을 효유하여 보낸 유씨(여성)에 대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자, 분을 이기지 못한 유씨는 자살했다(「츄혹하다 그 부인」 1908.6.14.2면). 여성에게 성적 정체성이 여전히 중요한 명예 요소임을 보여준다.

둘째, 화간(통간)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 사건의 초점이 부부불화가 아닌 형사 사건에 집중된 경우다. 순사의 민간 여성 통간,⁸⁵⁾ 유부녀 실종 사건,⁸⁶⁾ 고용인 여성(16세)이 정혼 후 잠통하자, 이를 만류하다가 도리어 협박당한 사건⁸⁷⁾ 등이 그 예다. 가해 남성은 '유부녀 통간률'에 의해 징역 선고를 받았다(「姦通現露의 被捉」 1907.6.4).

셋째, 유명인사와 관련된 성적 스캔들이다. 언론이 부부싸움을 상세히 보도한다든지, 별실과의 만남과 이별, 성관계를 둘러싼 추문⁸⁸⁾, 기생과

82) 「□□의적행(□□의悖行)」(1908.4.9.2면)은 신부를 겁간하려는 이를 만류하는 신랑을 포살하고, 근처에서 나물 캐는 여인 세명을 겁간하여 여성들이 자살을 결심했다는 '전설'을 실었다.

83) 「유부녀를 유인하라고」(1908.10.14.)는 동서지간인 리성녀와 김성녀가 유부녀 김씨에게 개가를 권유하여 듣지 않자, 김씨를 결박하고 강간을 종용한 사건이다.

84) 「狂蝶採葉」 1907.11.28.3면.; 「강간죄인 압상」 1909.1.13. 등.

85) 「도적이 킁를 드러」(1908.3.27.3면)는 순사가 거민의 계집을 통간하다 본부에게 잡히자 도리어 '일기 평민으로 고등경찰관을 모르고 이갓치 चु욕을 보이느냐'며 본부를 구타한 사건이다.

86) 남편이 풍병을 치료하러 수삭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리씨 집에 세를 살던 부인 조씨가 리씨의 유인을 받아 청년들과 노닐다가 사라진 사건. 조씨의 아버지는 리씨의 소위로 짐작하고 경찰서에 호소했다.

87) 「혼인하라는 계집아희를 잠통」 1908.11.29.2면.

희롱하는 것을 비평하거나(「윤씨의 호식」, 1908.10.22.2면), 기생 작첩의 보도(「첩을 또 두었나」, 1908.10.28.2면), 황실 지친의 방탕한 행적 보도(「알 수 있나」, 1908.11.28.2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기생과 관련된 기사다. 이는 놀이,⁸⁹⁾ 연회,⁹⁰⁾ 방탕한 관계, 이를 질투하는 부인과의 갈등,⁹¹⁾ 기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⁹²⁾ 등, ‘문제적’ 사건기사들이다.⁹³⁾ 이 중에는 기생과 삼패에 대한 성적 희롱을 당연시 하는 풍조도 포함된다. 궁내부 마차감 문창규가 취흥을 즐기다가 남성과 동반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기싱이나 습퓌냐 흐며 무슈히 희롱하다가 인흐야 강간하랴’ 한 사건(「음풍은 주러지지 안나」 1908.4.9.2면)이 그 예다. 기생 조합의 설시를 도모한 것이 기생 서방이라는 기사⁹⁴⁾는 기생

88) 「륙십로인이 복상□가 말이야」(1908.4.24.)는 전참관 유진규(60여세)가 상처하고 소첩을 얻어 복상시한 사건을 서술했다. 그 밖에 「走逐一般」 1908.2.6.3면 등.

89) 「公察一卓」(1907.5.21.2면) 등. 「우숨이 변희 울음되엇네」(1908.6.9.2면)는 기생을 청해 질탕하게 놀다가 침실에 화재가 나 재산피해를 입은 기사다. 기생을 ‘놀이’와 관련해 서술한 기사에서는 ‘질탕’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동원되었다(「놀고보지」 1908.6.14.2면 등).

90) 「雄谷氏設宴」 1907.5.21.2면. 「明月館 記者 招待 會況」(1908.1.8.2면)에는 명월관 주인이 성대한 연회를 열어 신문기자를 대접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정운복도 참여했다. 그 외에도 관리들이 명월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개설한 기사가 많다(「그 기싱에게 대신 테모 일엇지」 1908.12.4.2면)

91) 「사름 치고 세간 처」(1908.9.6.2면)는 관리들이 기생을 대동하고 원각사에서 구경하며 희롱하다가 이를 본 부인이 분해서 남편을 냉대하자, 주안상과 세간을 파쇄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관리와 기부(妓夫)와의 갈등도 연루되어 있다.

92) 「심흔즉 부형도 속여」 1908.10.20.2면.

93) 근대초기 기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박애경, 「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 근대 초기 신문 매체에 나타난 기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328~345쪽을 참조. 박애경은 『제국신문』에서 기생과 삼패가 공적 영역에 침투한 음란한 계집으로 서술되었음에 주목했으며, 이들이 ‘동원’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1907년의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며 ‘집단적 자의식’을 구축했음을 논의했다(「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 무녀, 기생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28~130쪽). 기생들이 만민공동회에 성금을 보낸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박애경(2012), 349쪽을 참조.

94) 「기싱조합 청원의 작퇴」 1908.10.31.2면.; 「기싱조합소 청원 승인」 1908.12.23.2면.

의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데도 남성이 매개되었음을 보여준다.⁹⁵⁾

그러나 기생이 일어 교육을 받고,⁹⁶⁾ 서화와 음률에 능한 기생이 공부차로 상경한 사례,⁹⁷⁾ 의병의 피해를 받은 자를 위해 구휼회를 조직하거나(『기침이 대신보다 낫다 1908.4.18.], 국채보상금에 참여하고 부랑자제에게 부국강병을 권면한 사례(『희한한 기침』 1908.5.19.2면) 등도 실렸다. 이들은 ‘예외적이고’ ‘희귀한 여자’로 간주되었다.

다섯째, 매음녀 문제는 풍속개량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국신문』 잡보란에 빈번하게 기사화되었다.⁹⁸⁾ 매음녀 기사는 기생, 위생, 악습 등의 어휘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

기생에게 매음 영업 인가증이 발급되었다는 기사⁹⁹⁾는 기생의 매음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정황을 보여준다. 위생 검사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실시했으며, ‘기침과 기타 뭍음녀를 일테검사’하거나,¹⁰⁰⁾ 단속령을 내려 ‘삼척와 식주가를 관인구락부로 소집하는 방식이었다.¹⁰¹⁾ 단속령을 무시하고 매음하는 것은 ‘밀매음’으로 간주되어 경찰서에 피착되었다.¹⁰²⁾ 경시청에서 매음녀 위생을 전담하는 ‘검뭍소(檢黻所)’를 설치하고자 추산한 경비는 3,900여환이다.¹⁰³⁾

당시 남부 동현 경찰서에서 조사한 매음녀의 수자는 179명이며, 보균자는 27명이고, 인천 화개동의 매음녀 52명 중 보균자는 4명, 강계군(평

95) 원각사 기생들에게 노름채를 주지 않은 이를 기생서방들이 이를 구타한 사례(『기침 서방의 힘찍』 1908.11.17.)를 통해 기생서방과 기생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기침 서방등의 힘찍을 사름마다 비방한다더라’는 서술은 기생서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다.

96) 『기침을 일어 가라친다지』(1908.8.22.2면)는 원각사에서 일어교사를 연방해 기생에게 매일 한 시간씩 일어를 교수한다는 기사다.

97) 『잘 심각히지』 1908.12.18.2면.

98) 『짜치집에 비들기』(1909.2.25.3면) 등.

99) 『뭍음증서 발급』 1908.10.23.2면.; 『뭍음녀도 적지 안치』 1908.10.31.2면.

100) 『장옷 쓰고 검사 맞아』 1908.9.3.2면.

101) 『뭍음녀 단속』 1908.10.1.2면.; 『뭍음녀 단속령 공포』 1908.10.2.2면.

102) 가만히 뭍음한다 경찰서 구경 1909.2.11.3면.; 『밀뭍음하는 일녀』 1909.2.27. 등.

103) 『검뭍소 규정과 경비』 1909.2.11.3면.

안북도)은 인구 3,960명 중에 매음녀가 400명이다.¹⁰⁴⁾ 당시 매음녀 중에는 일본인도 있었다.¹⁰⁵⁾ 매음녀 위생 검사에서 병이 발견되면 소독약을 쓰게 하고, 매음 정지를 시켰다.¹⁰⁶⁾ 창독이 있는 자는 주 1회 검사했으며,¹⁰⁷⁾ 의원이 직접 경찰관에게 검사를 위임하기도 했다.¹⁰⁸⁾ 매음 장소는 일본 여인이 영업하는 료리집¹⁰⁹⁾ 등이다.

매음은 악습으로 간주되어 비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리의 대상이었다.¹¹⁰⁾ 악습을 통금하기 위해 기생과 삼패 이외의 행음을 정탐하여 징치하고자 순사가 잠통 현장을 발각한 사례¹¹¹⁾는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침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또한 청결검사를 맡은 일인 경순사가 여인을 겁간하려한 사례는 매음녀의 인권 취약성을 시사하고 있다.¹¹²⁾

‘층층시하에 작첩’하지 못한 참서가 ‘갈보’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아 박대당하고 망신당한 사건 기사는 모종의 가십거리로 기사화되었다.¹¹³⁾

여섯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문제다. 인신매매를 주도한 이는 여자의 부친,¹¹⁴⁾ 모친,¹¹⁵⁾ 남편,¹¹⁶⁾ 조카,¹¹⁷⁾ 집주인,¹¹⁸⁾ 동료¹¹⁹⁾ 등

104) 출처는 차례로 「뒤편녀는 웨그리 만은고, 1908.5.12.; 인천항 뒤편녀 검사, 1908.5.17.2면.; 「뒤편녀도 만치, 1908.6.7.2면.

105) ‘남부 장동에 거류하는 일본인 서방(緒方)씨 료리점에서 뒤편하는 일녀 길던지요 (吉田枝天) (도주하라다 붓잡힘, 1908.8.5.3면); ‘즌고지 거류하는 일녀 안부죽(安富竹) (‘뒤편하는 일녀, 1909.2.27)

106) 「賣淫女檢査, 1907.8.15.3면.

107) 「賣淫婦檢査의 頻數, 1908.2.7.2면.

108) 「檢査日女, 1908.2.19.

109) 「檢査日女, 1908.2.19.

110) ‘경시령에서 각서에 신칙하야 기싱이나 삼패 이외 과부라 칭하던지 남의 별실이던 지 기타 유부녀가 승야 왕릭하면서 횡음하는 악습을 저저히 스탄하야 보하라 흠으로 각서에서 지금 비밀히 스실하는 중이라더라’ (‘宜有是禁, 1907.11.24.2면)

111) 「作心三日, 1908.1.12.3면.; 「宣遭此舉, 1908.2.7.2면 등.

112) 「일인 경부의 쾰형(日警部悻行), 1908.4.14.2면.

113) 「대단히 무안히슬길, 1908.11.11.2면.

114) 「기도야지만 못흔 놈, 1909.2.11.2면. 팔촌 누이와 살면서 본처가 낳은 딸 (14세)을 청국인에게 금화 60원에 팔고 노름한 사례.

115) ‘남부 인현 료리집에 사는 강소사의 딸 산호주는 그 나이 열아홉살인디 그 일흠과 갖치 참 절세미인이라 그러나 집안이 불여의하야 그 딸을 이년 전에 서부 아현 사

가족과 이웃이며, 아동,¹²⁰⁾ 미혼/기혼 여성¹²¹⁾ 모두를 포함한다. 주로 매음 대상으로 팔았지만, 술집에 팔기도 했으며,¹²²⁾ 총명한 여자 아이를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¹²³⁾ 수양딸(7세)로 보내면서 모친이 돈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4년 후 딸이 종으로 부려지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다.¹²⁴⁾ 여성을 청국인에게 매매한 사례도 발견된다.¹²⁵⁾ 매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괴와 관련된 기사도 그 대상은 여성이다.¹²⁶⁾ 매매가

는 송경준의 갈보집에다 팔십원을 받고 팔아먹었더니’ (『다시는 갈보집에 팔지말 시샤구 1908.11.21.1면. 외보)

- 116) ‘그 계집의 소공이 김가와 룡례를 갖초와 혼인혼 터인디 김가가 강데력으로 위협 하며 미음을 안이하면 너를 축출하겠다 혼고로 마지못하야 그리 혼얏노라 혼거 놀’ (『계 계집다려 미음을 혼리』 1908.12.20.2면.)
- 117) 『숙모를 팔아먹는 놈』 1908.10.14. 숙모에게 영업해서 취리(取利)하자고 유인해 서울로 데려가 30원에 판 사건.
- 118) 『남의 계집을 청인에게 팔아』(1908.7.30.2면)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딸(19세)을 청국인에게 신화 50원에 팔아 경찰서에 압수된 사건. 『남의 계집 유인하고 본셔방 썩려』(1908.12.17.3면)는 집주인이 세입자 아내를 유인해 술집에 팔아먹은 사건.
- 119) 『넋외 쪽갓혼 것들』(1908.11.8.3면)은 인력거꾼 내외가 다른 인력거꾼의 아내(19세)를 유인해 다른 이에게 보낸 사례다. ‘매매’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매매로 보인다.
- 120) 슈양쫄이 변하야 종이 되야』(1908.6.19)는 7세, 슬몹이 남의 아히를 유인히갓군』(1908.12.13.)은 8세, 『인신미미범 압송』(1909.2.28.3면)은 11세 여아가 매매 대상이다.
- 121) 『어미가 쫄을 팔아』(1908.6.12.2면)에서는 혼인한 딸을 모친이 500냥에 다른 남자에게 판 사건이다.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 밖에도 『인물유인홀 놈』(1908.9.5.3면); 『넋외 쪽갓혼 것들』(1908.11.8.3면); 『남의 계집 유인하고 본셔방 썩려』(1908.12.17.3면); 『남의 별실을 미미하야』(1909.1.29.3면); 『계집 갑시 십사원이야』(1909.2.14.3면) 등이 있다.
- 122) 『남의 계집 유인하고 본셔방 썩려』(1908.12.17.3면)
- 123) ‘평양 스는 옥미라 혼는 기집야회가 지금 나이 열두살인디 녀공과 서칙을 잘 알고 외국 말이라도 한 번 들으면 잇지 안이혼는 총명이 잇스며 기외에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을 듯고 경성 스동 스는 정모가 평양을 가서 돈 몇천원을 주고 스왓다는 디 그 말이 아마 그짓말이지’ (眞耶非耶, 1907.12.1.3면.)
- 124) 『슈양쫄이 변하야 종이 되야』 1908.6.19.
- 125) 『남의 계집을 청인에게 팔아』 1908.7.30.2면.; 인물유인홀 놈』 1908.9.5.3면; 『기도야지만 못혼 놈』 1909.2.11.2면.; 인신미미범 압송』(1909.2.28.3면) 등.
- 126) 『인물초인(人物招引)』(1908.5.15.)은 변실과 함께 사랑채에 세 사는 이의 16세 딸을 빼돌려 경찰서에 압수된 사건이다.

는 14~15원 정도다.¹²⁷⁾

이상의 잡보 기사는 논설란이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적 삶의 풍속에 해당한다. 당시 여성이 강간, 매음, 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족과 지친 남성의 일방적 판단과 행동에 의해 위협받고 희생된 사례가 빈번했음을 시사한다. 논설은 이를 개량의 대상으로 논하지 않았지만, 잡보란에서 ‘사건화된 기사’를 통해 여성적 삶의 위태로움과 불안, 위기가 포착되었다. ‘사건 기사’의 특성상 이것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논의된 것은 필연적 귀결이었지만, 이를 논리와 이성, 지식의 차원에서 문제화했을 때 가능했던 남성-지배의 위험성에 대한 성찰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이 파악된다.

4. 결론

근대 초기에는 ‘계몽’의 논리가 지배적 이념이자 사회적 주장으로서 통용되었지만, 이는 지식인-남성이 주도한 매체의 단면에 불과하다. 근대초기 문화적 실상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계몽을 주장하는 논설란만을 배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제국신문』에 연재된 ‘풍속개량론’과 관련된 논설, 별보, 기사를 잡보란에 기재된 다양한 사건기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근대 풍속과 문화의 다층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제국신문』 잡보란에 게재된 여성 관련 풍속과 사건 기사의 일부는 논설에 연재된 ‘풍속개량론’의 논지와 일치하기도 했지만, 논설로 대표되는 지식인-남성 중심의 근대적 시각이 포착할 수 없었던 모순과 균열, 충돌과 혼란, 파행과 문제들이 다양하게 포착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계몽의 논리와는 다른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사회

127) 여성 매매값은 「계집 갑시 십사원이야」(1909.2.14.3면)는 14원, 「남의 별실을 미미하여」(1909.1.29.3면)은 금화 15원이다.

적 상상력의 추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신문』에 연재된 풍속개량론 연재 및 관련 기사, 별보는 잡보란에 게재된 여성 관련 사건 기사와 상당 부분이 겹쳐 있었다. 이는 ‘논설’과 ‘잡보’의 긴밀한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일종의 시대문화를 읽는 언론의 시각이 제안되었음을 보여준다. 『제국신문』이 사회를 조망하는 ‘렌즈’로 기능했음을 입증한다.

둘째, 『제국신문』 논설란에 제안된 풍속개량론이 일종의 계몽담론으로서 ‘주장’의 형식을 띠었다면, 잡보란에는 논설란이 누락시킨 실재하는 위험, 불안, 충돌, 혼란, 불행의 문제가 일종의 ‘사건’으로 서술되었다.

셋째, 젠더적 시각에서 『제국신문』 잡보란을 분석한 결과, 논설에서 주장으로 제안된 ‘개가’나 ‘혼례’의 문제가 일상의 차원에서는 실제 삶의 다기한 갈등과 연루되어 ‘사건화’되었고, 여기서 발생한 문제를 여성이 직접 감당해야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

넷째, 『제국신문』의 잡보란에는 논설에서는 미처 제안되거나 비판, 지적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문제, 예컨대, 강간, 매매혼, 인신매매 관련 사건이 서술되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체는 단지 기사화하는데 그쳤을 뿐, 이에 대한 해결이나 극복 방안을 논설란을 통해 강구하는 ‘문제해결력’이나 ‘사회대응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는 매체 내에 공존했던 근대적 시각과 이해 방식의 균열과 모순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논설란만을 중심으로 근대성을 논할 경우 수반되는 단층적 이해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풍속개량을 둘러싼 『제국신문』 논설(별보/기사)과 잡보를 비교한 결과, 근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식인 중심으로 논의할 경우, 주장과 이념으로서의 근대계몽, 계몽주체의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에는 도달할 수 있지만, 계몽의 대상이 되었던 실제 인민의 일상적 삶과 풍속의 전모, 계몽론에 대한 대중의 수용과 정서적 이해와 반응, 감정 관찰 등은 배제될 수 있었음을 해명했다.

여섯째, 『제국신문』 잡보란에는 논설에서는 제안되지 않았지만 풍속과

문화가 개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야기할 만한 일상의 사건이 세밀하게 관찰되어 서술되었다. 인신매매, 매매혼, 중매 사기 등의 사건 기술을 통해 당시 여성의 인권이 가정 내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없었던 실상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개가를 권유하는 제도와 이념, 계몽론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을 따라죽는 여성을 열녀로 치하하는 문화가 공존했음이 잡보란의 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전통적 이념과 근대계몽의 논리가 충돌하는 형태로 공존하는 모습 자체가 근대의 실상이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일곱째, 『제국신문』 잡보란은 풍속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상사에 대한 독자 대중의 폭넓은 이해도를 견인하고, 계몽의 시선 이외에 근대 초기의 사회에서 요청되었던 다양한 윤리, 예절, 매너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요청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제기되지 않은 지점인데, 근대초기 신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지식인 집필자가 쓴 논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실재했던 일상의 사건을 다룬 잡보란을 검토하고, 이와 연관된 논설/별보/기사를 비교함으로써, 인민의 비판적 능력, 사회 성찰의 가능성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논설’와 ‘잡보’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함으로써 근대의 다층성에 접근할 수 있고, 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근대를 바라보는 연구 관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제국신문』

근대초기매체연구회 편역, 『제국신문 미공개 논설자료집』, 현실문화, 2014.

2. 단행본

김미지, 『누가 하이카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 살림, 2005, 1~93쪽.

김미선 면담 편집 · 임형선 · 이종수 · 양충자 구술, 『모던 걸, 치장治裝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08, 1~335쪽.

김주리,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살림, 2005, 1~95쪽.

C.Wright. Mills, 『사회학적 상상력』, 강희경 · 이해찬 역, 돌베개, 2004, 1~300쪽.

3. 논문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 '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화사연구』 51호, 민족문화사학회, 2013, 343~385쪽.

김은정, 『1920~30년대 한국 여성 패션과 소비문화의 변화』, 연세대 박사논문, 2013, 1~156쪽.

김주리, 『근대적 패션의 성립과 1930년대 문학의 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 7집, 한국현대문학회, 1999, 123~150쪽.

박애경,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제국신문』에 나타난 첩, 무녀, 기생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03~138쪽.

박애경, 『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 근대 초기 신문 매체에 나타난 기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23~357쪽.

- 이형대,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고전과 해석』 1호,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06, 7~34쪽.
- 이형대, 근대계몽기 과부(寡婦)에 대한 시적 표상과 매체적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5~35쪽.
- 최기숙, 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표류라는 서사의 근대성, 『고소설연구』 37집, 한국고소설학회, 2014(a), 49~89쪽.
- 최기숙, 「'사건화'된 일상과 '활자화'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b), 231~285쪽.
- 최기숙, 「이념의 근대와 분열/착종되는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담론: 『제국신문』 논설·기서(별보)·서사의 여성 담론과 재현」, 『여성문학연구』 31, 2014(c), 77~117쪽.
- 최기숙, 舊物如何成爲頑固: 透過帝國新聞(1898-1908)看近代化理論的錯綜與逆說('옛것'은 어떻게 '완고'가 되었나?: 『제국신문』(1898-1908)을 통해 본 근대화 논리의 착종과 역설),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제 2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2014(d). 4.21(월), 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 2층 회의실, (中國語:1~13)+(한국어:1~19)쪽.

Abstract

Everyday Life as a News and Social Imagination on the Improvement of Cultur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lumns and Articles of *Jekuk Sinmun* with Gendered Perspective

Choe, Key-Sook

This research re-invested *Jekuk Sinmun* with the concept of ‘multi-layered modernity’ by analyzing all columns and articles during 1907.5.17.~1909.2.28. with related to woman’s everyday life.

The greatest part amongst serialized columns of ‘cultural improvement’ with regard to women is about a costume, remarriage, forced marriage, and infant caring, etc. Correspondence column by woman reader showed their consideration about educational right and cultural attitude. It played a role to extend the newspapers’ interest and perspective on the women’s society.

The serialized columns on cultural improvement were structured an enlightenment discourses, but the articles which were related to the similar topics were narrated as problematic accidents civilly and criminally. The columnist insisted that widows should be remarriage by their voluntary intention, but lots of articles were written about lots of fraud cases, assault incidents, and diverse crimes surround kidnap that were related with widows. On the other hand, that newspaper also published several articles on virtuous women who commit suicide after dying their husbands.

The Columnist criticised forced marriage, but many articles were published about purchasing marriage, incident on concubine, rape, adultery,

violence, runaway from home of woman, and also dealt with couple troubles. The perspective of these articles is male-dominated, but also coexisted the women-centric viewpoint that showed sympathy with women's resentment.

The sections of article were printed with problematic incidents with regard to rape, adultery, sexual scandals of celebrities, kisaeng, prostitution (sanitation, crimes, gossips), and human traffic. These incidents were never mentioned in columns of *Jekuk Sinmun*.

Key words : *Jekuk Sinmun*, Improvement of Culture, Column, Article, Modernity, Everyday Life as a News, Enlightenment, Woman, Rape, Purchasing Marriage, Human Traffic, Early Marriage, Couple Trouble, Multi-Layered Modernity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